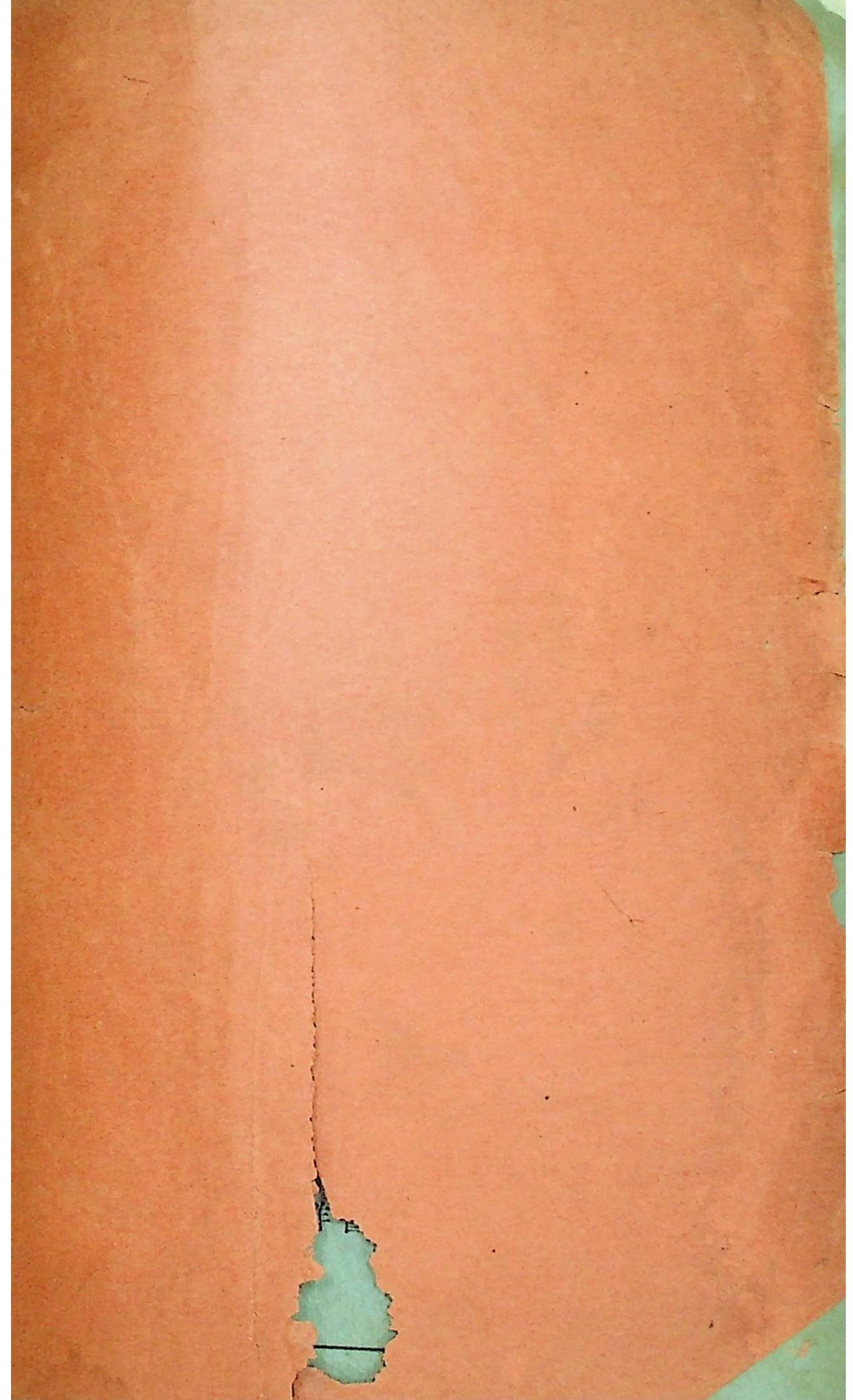


요한복음





구주 강성 일천 구벽 삼삼년

# 요한복음

대일본대정이년

조선경성대

영성서

공회간발

The Gospel of St. John in Korean.

1913.

BRITISH & FOREIGN BIBLE SOCIETY.  
SEOUL, KOREA.

에 수 그리  
스도는 곳  
하느님이시  
호사 름이시  
치실  
세상의 빛

一 二 三 四 五 六 七 八 九 一

# 요한 복음

요한의 거룩한 대로 쓴 거시라

태초에 말숨이 (혹은) 잇스니 말숨이 하느님과 그치 계시매 말숨은 곳  
하느님이시라 이 = (도라) 말숨이 태초에 하느님과 그치 계서서 말숨으로 만물이  
지은 바 되었스니 지은 물건이 말숨 업시는 지은 거시 호나도 업느니라  
성명이 말씀에 잇스니 성명은 사람의 빛치라 빛치 어두운 뒤 빛최되  
어두운 거시 씨듯지못唬더라 하느님의 보내신 사람이 잇스니 일홈은  
요한이라 더가 와서 증거唬는 거슨 빛출위唬야 증거唬는 거시니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즐거를 인唬야 다 빛게 흠이라 요한은 이 빛치 아니오  
이 빛출 위唬야 증거唬려 온자라 촘 빛치 잇스니 세상에 는리샤 각  
사람의게 다 빛최는 거시라 그가 세상을 지으시고 세상에 계시되 세상이  
아지못唬고 즐거 땅에 와도 그 빅성이 터접지아니唬되 터접唬는자는  
그 일홈을 맛는 자라 천세를 주샤 하느님의 즐녀가 되게 호시느니 이는  
혈괴로 난 것도 아니오 정육으로 난 것도 아니오 사람의 쫓으로 난 것도  
아니오 하느님세로셔 난 거시라 말숨이 육신이 되여 우리 가온터

요한 일장

이

거호야 은혜와 진리가 그득호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성  
요한이 예수를  
위호야 애증  
거호

조의 영광이러라 요한이 이를 위호야 증거호야 불녀 글으니 내가 전에  
말호기를 내 뒤에 오시는이가 나보다 압선 거슨 나보다 몬저 계심이  
나라 호말이 이 사름을 그르침이라 우리가 다 그 충만호 터셔 맛고  
도 은혜 우에 은혜를 엇는지라 를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거시오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거시라 본리 하느님을 본  
사름이 업스되 아바지 품속에 잇는 독성조가 나타내셨느니라 ○ 요한의  
증거가 이러호니라 유대 사름이 예루살렘에서 제스강파 래위의 조손을  
보내여 요한드려 무려 글으니 네가 누구냐 훌 때에 요한이 안다호고  
숨기지 아니호니 안다호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흔히 도 무르티  
그러면 누구냐 엘니야냐 호니 글으니 아니라도 무르티 선지자냐 터답  
호티 그도 아니라 흔히 도 무르티 누구냐 우리가 우리 보낸 사름의 계  
터답호개 호라 네가 누구라 호느냐 흔히 글으니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꼬치 광야에서 웨치는 소리니 글으니 주의 길을 곳개 호라 호옛  
나리라 호니 이는 바리서교인의계서 보낸 사름이라 도 무려 글으니

하  
누  
님  
의  
어  
려  
줄  
양  
을  
마  
르

네가 그리스도도 아니오 엘니야도 아니오 그 선지자도 아니어늘 엊지  
호야 세례를 주느냐 <sup>二六</sup> 요한이 되답호되 나는 물노 세례를 주거니와 혼  
사름이 너희 가온터 섯스되 너희가 아지못호도다 이는 나보다 뒤에  
오시는자라 내가 그 신들메 풀기도 감당치못호리라 호니 이 일은 <sup>二七</sup> 요단강  
건너편 벗아니에서 호옛스니 <sup>二八</sup> 요한의 세례 주는 곳이더라 ○ 잇흔날  
요한이 예수께서 조괴의세 나아오심을 보고 굴으되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느님의 어린 양을 보라 내가 전에 말호기를 혼사름이 내 뒤에 와도  
나보다 압선 거슨 나보다 몬저 <sup>二九</sup> 계심이라 호거시 이 사름을 그르침이라  
나도 아지못호옛스나 내가 와서 물노 세례를 주는 거슨 그를 이스라엘  
의계 나타내고 져함이라 호터라 <sup>三〇</sup> 요한이 죄증거호야 굴으되 내가 보매  
성신이 비둘이 모양으로 하늘노셔 <sup>三一</sup> 느려와서 그 우에 머므렛스니 <sup>三二</sup> 나도  
아지못호옛스나 나를 보내여 물노 세례를 주라 호신이가 나드려 말씀  
호샤티 성신이 느려셔 뉘우에 머므는거슬 보면 그가 곳 성신으로 세례  
주눈이라 호기에 내가 보고 하느님의 아들되심을 증거호옛노라 호더라  
○ <sup>三三</sup> 잇흔날 요한이 두 데조와 꽃치 섯다가 <sup>三四</sup> 예수의 든니심을 보고

요한 일장

요한의 두문  
도가에 수를  
좇침

말<sup>흐</sup>티 하느님의 어린 양을 보라 호니 두 데<sup>조</sup>가 그 말을 듣고 곳  
예수를 쫓거늘 예수 — 몸을 도리켜 쫓는 거슬 보시고 무려 굴<sup>으</sup>샤<sup>티</sup>  
무어슬 구<sup>흐</sup>느나 굴<sup>으</sup>티 랍비여 어<sup>티</sup> 계시오<sup>느</sup>가 호니 랍비는 번역<sup>흐</sup>면  
션성이라 예수 — 굴<sup>으</sup>샤<sup>티</sup> 와 보라 호신<sup>티</sup> 더희가 와서 계신 티를 보고  
그 날<sup>흐</sup>치 거<sup>흐</sup>니 때가 신정<sup>흐</sup> 좀 되<sup>었</sup>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좇는 두 사람 중에<sup>흐</sup>나는 시몬 베드로의 아오 안드레라 몬져 그 형  
시몬을 차자 보고 말<sup>흐</sup>티 우리가 메시야를 맛낫다<sup>흐</sup>니 메시야는 번역  
수면 그리스도라 다리고 예수세로 오니 예수 — 보시고 굴<sup>으</sup>샤<sup>티</sup> 네가  
요나의 아들 시몬이니 장<sup>흐</sup> 체<sup>흐</sup> 바라 호리라<sup>흐</sup>시니 체<sup>흐</sup> 바는 번역<sup>흐</sup>죽  
베드로<sup>흐</sup> 러라 ○ 잇<sup>흐</sup> 날 예수세서<sup>흐</sup> 갈<sup>흐</sup> 닐<sup>흐</sup> 니로 가려<sup>흐</sup> 시다가<sup>흐</sup> 빌<sup>흐</sup> 남을 맛나  
널<sup>흐</sup> 샤<sup>티</sup> 나를 쫓<sup>흐</sup> 치라<sup>흐</sup> 시니 빌<sup>흐</sup> 남은 벗<sup>흐</sup> 새다<sup>흐</sup> 사람이니 안드레와 베드  
로와<sup>흐</sup> 고<sup>흐</sup> 치<sup>흐</sup> 혼<sup>흐</sup> 성<sup>흐</sup> 사람이라 빌<sup>흐</sup> 남이<sup>흐</sup> 나다<sup>흐</sup> 나엘<sup>흐</sup> 을 차자 보고<sup>흐</sup> 날<sup>흐</sup> 티 모세의  
를<sup>흐</sup> 범<sup>흐</sup>에<sup>흐</sup> 괴<sup>흐</sup> 록<sup>흐</sup> 혼<sup>흐</sup> 바와<sup>흐</sup> 여러<sup>흐</sup> 선<sup>흐</sup> 자<sup>흐</sup> 의<sup>흐</sup> 괴<sup>흐</sup> 록<sup>흐</sup> 혼<sup>흐</sup> 이를<sup>흐</sup> 우리<sup>흐</sup> 가<sup>흐</sup> 맛<sup>흐</sup> 낫<sup>흐</sup> 슈<sup>느</sup>니<sup>흐</sup> 요셉<sup>흐</sup> 의  
아들<sup>흐</sup> 나사렛<sup>흐</sup> 예수라<sup>흐</sup> 혼<sup>흐</sup> 티<sup>흐</sup> 나다<sup>흐</sup> 나엘<sup>흐</sup> 굴<sup>으</sup> 티<sup>흐</sup> 나사렛<sup>흐</sup> 에서<sup>흐</sup> 무<sup>흐</sup> 솜<sup>흐</sup> 혼<sup>흐</sup>  
거시<sup>흐</sup> 나<sup>흐</sup> 뗏<sup>흐</sup> 느<sup>흐</sup> 나<sup>흐</sup> 호<sup>흐</sup>니<sup>흐</sup> 빌<sup>흐</sup> 남이<sup>흐</sup> 굴<sup>으</sup> 티<sup>흐</sup> 와<sup>흐</sup> 보라<sup>흐</sup> 호<sup>흐</sup> 더<sup>흐</sup> 라<sup>흐</sup> 예수 — 나다<sup>흐</sup> 나<sup>흐</sup> 엘<sup>흐</sup> 이

四七 四六 四五 四四 四三

빌<sup>흐</sup> 남<sup>흐</sup> 파<sup>흐</sup> 나<sup>흐</sup> 다<sup>흐</sup>  
나<sup>흐</sup> 엘<sup>흐</sup> 이<sup>흐</sup> 예<sup>흐</sup> 수<sup>흐</sup>  
를<sup>흐</sup> 쫓<sup>흐</sup> 침

七 六 五 四 二 五 一 五 十 四 九 五 八

오는 거슬 보시고 그르쳐 글으샤되 이사람이 촘으로 이스라엘 사람  
 이니 간사호 거시 업도다 나다나엘<sup>四八</sup>이 글으티 엉더케 나를 아시는 잇가  
 예수니 터답호야 글으샤되 빌님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잇슬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sup>四九</sup>이 터답호되 랍비여 하느님의 아들  
 이시오 이스라엘<sup>五</sup> 님군이로소이다 예수니 터답호야 글으샤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흠으로 멋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허시고 또 글으샤되 진실노 진실노 너희게 날으노니 하늘이 열니고  
 하느님의 스자가 인조우에 오르락 누리락 흠은 거슬 보리라 허시더라  
 사흘후에 갈닐니 가나에 혼인이 잇서 예수의 어머니도 거괴 계시고  
 예수와 그 데즈들도 혼인에 청호야 갖더니 포도쥬가 진호매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드려 날으되 포도쥬가 업다 흐니 예수니 글으샤되 녀인  
 이여 나와 무슴 상관이 잇는뇨 내 때가 아직 날르지 못흐엿는이다 그<sup>五</sup>  
 어머니가 모든 하인드려 날으되 너희게 날으시는대로 곳 힝흐라 흐더라  
 거괴서 유대인의 결례를 쓰라 돌항아리 여슷시 노헛스니 미항아리에  
 두세 통을 담겠는지라 예수니 너희드려 날으샤되 항아리에 물을 부어

요한 이장

록

가비나움으로 누려가심  
성년에 서무 역호는 자를 쫓자내심

치우라 흥신되 항아리 아구선지 치우니 도 글으샤되 떠서 잔치 맛흔  
 사람을 주라 흥신되 곳 떠다 주었더니 잔치 맛흔 사람이 맛보매 물이  
 포도주가 되였스나 어되셔 난지 아지못허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잔치 맛흔 사람이 신랑을 불너 말흥되 사람마다 몬져 료흔 술을 내여  
 손이 잘 먹은 후에 능준술을 내거늘 그 터가 지금서지 도흔 술을 두엇다  
 흥니 이 거슨 예수의 처음 이적이라 갈닐니 가나에서 힝호샤 그 영광을  
 나타내시매 데즈들이 밋더라 ○ 그 후에 예수 그 어머니와 형데와  
 데즈들과 끼치 가버나움으로 능려가샤 멋칠 계시지 못허니라 ○ 유대인의  
 유월절이 갖가온지라 예수 예루살넴으로 올나가샤 성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이 파는 사람들과 돈 뱗고는 사람 들이 안존 거슬 보시고  
 노선으로 채찍을 만드샤 모든 소와 양들을 성년에서 내여 쫓치시고 돈  
 뱗고는 사람의 돈을 쓸으시며 상을 업치시고 도 비둘이 파는 사람드려  
 널으샤되 이 물건을 가져가고 내 아바지의 집으로 장소호는 집을 삼지  
 말나 흥시거늘 데즈들이 성경 말씀을 성각하니 널넷스되 주의 덴을  
 위호야 고절호 거시 나를 삼쳐 떨흐게 흥리라 흥였더라 그런고로 유대

十八 十七

十九 二十

二十一 二十二

二十三 二四

성년으로 지 몸을 비유  
호심

여러사람이 조끼를 맛으  
나조끼는 데 아회계의 탁자  
아니호심

니고데모 의 개거듭  
남을 말슴 호

인이 무레 글으 뒤 네가 이 일을 헹울 전대 무숨 표적으로 우리의 개 보이  
겟느뇨 예수 | 뒤답 호 야 글으 샤 되 너희가 이 성년을 헐나 그리 호 면  
내가 사흘 만에 나른 키리라 호 시니 유 대인 이 글으 뒤 이 성년은 스십륙년  
만에 지었거늘 네가 삼일 만에 나른 키 겟느뇨 호 더라 이 러 케 말씀 호 심은  
성년으로 조괴 몸을 비유 호 심이니 죽은 가온 티 셔 살아나신 후에 데 조  
들이 이 이 말씀 호 신 거슬 성각 호 고 성경과 밋 예수의 말씀을 밋 더라 ○  
유월절을 당 호 때에 예수 | 예루살렘에 계시니 여러 사람 이 그 힝 호 신  
이 져을 보고 그 일 호 을 밋 으나 예수는 그 몸을 여희 계 의탁자 아니 호  
심은 사람을 다 아심이오 누구던지 사람을 마르쳐 증거 호 을 쓰시지  
아니 호 은 사람의 속을 아심이 러 라

바리서교인 중에 니고데모라 호 는 사람 이 잇스니 유 대 관원이라 이  
사람이 밤에 와서 예수를 보고 글으 뒤 랍비여 우리 가 선성 써셔 하느  
님 써로 브터 오신 선성인 줄 아느이다 하느님이 호 써 계시지 아니 호 시면  
선성의 흥 호 시는 이 져을 아모 사람도 호 지 못 호 이니이다 예수 | 뒤답  
호야 글으 샤 되 진실노 진실노 네게 닐 노니 사람 이 거듭 나지 아니 호 면

요한 삼장

팔

하는 님 나라를 보지 못하는 나라 니고데 모가 굳으니 사림이 늙으면  
엇더 캐 나겟습니 잇가 두번 어미 비 속에 드러갓다가 날수 잇습니 잇가  
예수니 터답호샤티 진실노 진실노 네게 닐으 노니 물파 성신으로 나지  
아니호면 하는 님 나라에 드러가지 못하는 니 육신으로 난 거슨 육신이오  
신으로 난 거슨 신이니 거듭나야 헛겟다 헛는 말을 괴이히 녁이 지말나  
바람이 임의로 불매 소리를 드러도 어티셔 오며 어티로 가는지 아지못  
흐느니 성신으로 난 사름은 다 이러호니라 니고데 모가 터답호야  
글으니 엇지 이러흔 일이 잇겟습니 잇가 예수니 글으니 샤티 네가 이스라  
엘의 선성이 되여 이러흔 일을 아지못하는 냐 진실노 진실노 네게 닐으  
노니 우리 아는 거슬 말하고 본 거슬 증거호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밧지 아니호는도다 이 세상 일을 말호여도 밧지 아니호거든 헛물며 하늘에  
일을 말호면 너희가 엉더 캐 밋겟느냐 하늘노서 누려온 자 밧게 하늘에  
온나간 자가 업스니 이는 하늘에 있는 인조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비암을  
든 것 조치 인조도 뜨 들녀야 호리니 무론 누구던지 떼를 밋으면 영성을  
엇으리라 ○ 하는 님이 세상을 이처럼 스랑호샤 독성조를 주셨스니 누구

거 흠  
야 애 세 래 예 수 를 위 흠  
지 막 중

던지 데를. 멋으면 멀망<sup>하</sup>지 안 코 영성을 엇으리라 하느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거시 세상을 명죄<sup>하</sup>시려<sup>하</sup>는 거시 아니오 그 아들 노세상  
을 구원<sup>하</sup>시려<sup>하</sup>는 거시라 데를 멋는 사람은 죄를 명<sup>하</sup>지 아니<sup>하</sup>고  
멋지 아니<sup>하</sup>는 사람들은 발서<sup>하</sup> 죄를 명<sup>하</sup>였스니 이는 하느님의 독성<sup>하</sup>의  
일<sup>하</sup>음을 멋지 아니<sup>하</sup>는 사람이라 빛치 세상을 림<sup>하</sup>되 사람이 제<sup>하</sup> 힝<sup>하</sup>는 일<sup>하</sup>이  
악<sup>하</sup>으로 빛보다 어두운 거슬 더<sup>하</sup> 도하<sup>하</sup>니 이 거시 죄를 명<sup>하</sup>한 거시라  
악을 힝<sup>하</sup>는 사람은 다 빛출<sup>하</sup> 뭐<sup>하</sup>워<sup>하</sup>야 빛<sup>하</sup>로 오지 아니<sup>하</sup>느니 이는 그  
호는 일이 칙망을 불가 두려워<sup>하</sup>미 오<sup>하</sup> 진리를 콧<sup>하</sup>는 사람은 빛<sup>하</sup>로 오느니  
이는 그<sup>하</sup> 호는<sup>하</sup> 일이 하느님을 힘<sup>하</sup>남여 힝<sup>하</sup>한 거슬<sup>하</sup> 나타내고<sup>하</sup> 져<sup>하</sup> 흠<sup>하</sup>이라  
호시더라 ○ 이후에 예수와 데<sup>하</sup>조들이 유대<sup>하</sup> 따<sup>하</sup>으로 가서<sup>하</sup> 꼬<sup>하</sup>치<sup>하</sup> 거<sup>하</sup>고<sup>하</sup> 류<sup>하</sup>며  
세례를 주고 요한은<sup>하</sup> 꼬<sup>하</sup> 살<sup>하</sup>념<sup>하</sup> 갖<sup>하</sup>가온<sup>하</sup> 애<sup>하</sup>논<sup>하</sup>에<sup>하</sup> 셰례<sup>하</sup>를<sup>하</sup> 주<sup>하</sup>니<sup>하</sup> 거<sup>하</sup>고<sup>하</sup>  
물들이<sup>하</sup> 만<sup>하</sup>흔<sup>하</sup> 연<sup>하</sup>고<sup>하</sup> 라<sup>하</sup> 사<sup>하</sup>람<sup>하</sup>이<sup>하</sup> 와<sup>하</sup>서<sup>하</sup> 셰례<sup>하</sup>를<sup>하</sup> 밟<sup>하</sup>으<sup>하</sup>니<sup>하</sup> 때<sup>하</sup>에<sup>하</sup> 요한<sup>하</sup>이<sup>하</sup> 아직<sup>하</sup> 옥에<sup>하</sup>  
가<sup>하</sup>치<sup>하</sup>지<sup>하</sup> 아니<sup>하</sup> 옛<sup>하</sup>는<sup>하</sup> 자<sup>하</sup>라<sup>하</sup> 요한<sup>하</sup>의<sup>하</sup> 데<sup>하</sup>조<sup>하</sup>가<sup>하</sup> 혼<sup>하</sup> 유<sup>하</sup>대<sup>하</sup>인<sup>하</sup>으<sup>하</sup>로<sup>하</sup> 더<sup>하</sup>브<sup>하</sup>러<sup>하</sup> 결<sup>하</sup>례<sup>하</sup>를<sup>하</sup>  
인<sup>하</sup>하<sup>야</sup> 변론<sup>하</sup>이<sup>하</sup> 되<sup>하</sup>였<sup>하</sup>더니<sup>하</sup> 요한<sup>하</sup>의<sup>하</sup> 께<sup>하</sup> 와<sup>하</sup>서<sup>하</sup> 골<sup>하</sup>으<sup>하</sup>티<sup>하</sup> 랍<sup>하</sup>비<sup>하</sup>여<sup>하</sup> 요단<sup>하</sup> 강<sup>하</sup> 밟<sup>하</sup>게<sup>하</sup>서<sup>하</sup>  
선<sup>하</sup>성<sup>하</sup>과<sup>하</sup> 꼬<sup>하</sup>치<sup>하</sup> 잇<sup>하</sup>서<sup>하</sup> 선<sup>하</sup>성<sup>하</sup> 셰<sup>하</sup>서<sup>하</sup> 증<sup>하</sup>거<sup>하</sup>호<sup>하</sup>던<sup>하</sup> 사람<sup>하</sup>이<sup>하</sup> 셰례<sup>하</sup>를<sup>하</sup> 주<sup>하</sup>매<sup>하</sup> 사<sup>하</sup>람<sup>하</sup>이<sup>하</sup> 다

요한 소장

십

그리로 가더이다 요한이 터답호야 골으터 만일 하늘에서 주지아니호  
 시면 사름이 아모 것도 밧을수 업느니라 전에 내가 말호기를 나는 그리  
 스도가 아니오 그 압서 보낸사름이라 혼말을 너희가 증거호 거시니라  
신부의 게 양가드는 사름은 신랑이니 신랑의 친구가 서서 듯다가 신랑의  
 소리를 드른즉 크게 깃버호느니 이러호 나의 깃봄이 충만호지라 그는  
 흥호여야 호겟고 나는 쇠호여야 홀지라 ○ 우으로 브터 오신이는 만물  
 우에 계신지라 따에서 난이는 따에 속호니 그 말호는 것도 따에 속호고  
 하늘노 오신이는 만물 우에 계시니 그가 보고 드른거슬 증거호되 증거  
 밧눈이 가업도다 그 증거를 밧눈이는 하느님이 촘되시다 호야 인을 첫  
 느니라 하느님의 보내신이는 하느님이 성신을 한량 업시 주셨스매  
 하느님의 말씀을 호시느니라 아바지셔서 아들을 사랑호샤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스니 아들을 믿는사름의 게는 영성이 잇고 아들을 믿지  
 아니호는 사름은 영성을 엉지못호고 하느님의 진노호심이 그 우에  
 잇느니라

사마리아녀  
인의개전도  
호심

교인이 드른줄을 쥬색셔 아시니 예수는 세례를 주신 거시 아니오 데  
들이 줌이러라 유대를 떠나샤 다시 갈닐니로 가실shire 사마리아 가온터로  
지나야 호겟는지라 사마리아에 잇는 수가라 호는성에 나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의게 준띠이 갖갑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잇는지라  
예수 | 길을 가시매 곤호샤 우물것해 안조시니 땅가 오정증 되엿는지라  
사마리아 <sup>녀인</sup> 호나이 물을 길너 왓거늘 예수 | 길으샤 <sup>터</sup> 물을 좀 달나  
호시니 그 땅에 데즈들은 먹을 거슬 사러 성에 드러갓더라 사마리아  
녀인이 길으 <sup>터</sup> 그 터가 유대인이 되여서 엊지호야 나 사마리아 <sup>녀인</sup> 드려  
물을 달나 호는냐 호나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름과 상종치 아니 흠  
이라 예수 | 터답호야 길으샤 <sup>터</sup> 네가 만일 하느님이 주신 것과 또 너드려  
물 좀 달나 호는이가 누구인줄 알았더면 네가 그의게 구호 <sup>터</sup> 옛스리니  
그가 성슈를 베개 주엇스리라 호신터 <sup>녀인</sup>이 길으 <sup>터</sup> 쥬여 물 <sup>기를</sup>  
그릇도 업고 이 우물이 또 깁호니 어터셔 성슈를 엉겟습는잇가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의게 주어 더와 더의 아들과 즐성이 다  
먹엇스오니 그 터가 엉지 야곱 보다 더 크니잇가 예수 | 터답호야 길으

샤티 이 물을 먹는사람마다 다시 목모르려니와 내가 주는물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목모르지아니흘지니 나 주는물이 그 속에서 심이되어  
 영성호도록 솟스리라 호신티 녀인이 글으티 쥬여 이런물을 내게 주샤  
목모르지아니호제 호시고 또 여괴와서 이물을 깃지아니호제 호옵쇼셔  
예수 | 글으샤티 네가 가서 남편을 불너 오라 호신티 녀인이 터답호야  
 글으티 남편이 업느이다 호니 글으샤티 네가 남편이 업다 호는 말이  
 올토다 네가 이 전에 남편 다술이 잇서스나 시방 잇는자는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촘되다 호신티 녀인이 글으티 쥬여 내가 보니 선지자  
 로소이다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레비호였거니와 너희 말은 레비홀  
 곳시 예루살렘에 잇다 호더이다 예수 | 글으샤티 녀인아 나를 멋으라  
 때가 나르리니 이 산에서나 예루살렘에서나 너희가 아바지씨 레비호  
 지아니호리라 너희는 아지못호는 거슬 레비호고 우리는 아는 거슬  
 레비호노니 구원함이 유대인의 죄서 낫는지라 때가 나르려니와 이제도  
 그때라 아바지씨 촘으로 레비호는 사람은 신령과 진리로 레비호리니  
 아바지셔서 이곳치 조괴의 개례비호는 사람을 차지시느니라 하느님은

신이신고로 레비호는자가 신령과 진리로 레비호를지니라 너인이 굽으되  
 내가 그리스도라 호신 메시야가 오실줄을 아노니 오시면 모든 거슬  
 우리에게 말슴호시리이다 예수 | 너인드려 날으샤티 너드려 말호는  
 내가 그로라 호시더라 ○ 이 때에 데즈들이 도라와서 예수 | 너인파  
 굽치 말슴호심을 보고 이양히녁이나 무어슬 구호며 또 엇지호야 너인파  
 말슴호옵는잇가 묻는 사름도 업더라 너인이 물 동의를 놋코 성에  
 드러가서 여러 사름드려 날으되 와서 나의 힝흔 모든 일을 말호사름을  
 보라이 사름이 그리스도인가 호니 더희가 성에 나가셔 예수세로 오더라  
 그 속이에 데즈들이 굳청호야 굽으되 탑비여 음식을 잡수쇼서 호니  
 굽으샤티 내게 먹을 량식이 있는듸 너희가 아지못혼다 호시니 데즈들이  
 서로 말호되 누가 잡수실 거슬 드렷는가 호티 예수 | 날으샤티 나를  
 보내신이의 뜻을 쪘자 그 일을 온전히 일우는 거시 나의 량식이라  
 너희가 말호기를 넉들이 지나야 곡식 거둘때가 나르겟다 호지아니호  
 누나 내가 너희께 날으노니 눈을 드러 밧줄 보라 곡식이 닉어 임의  
 누르렀스니 가히 거둘지라 거두는사름이 죽도 엇고 곡식을 영성궁도록

# 요한 신장

십

사마리아사  
름이만히잇  
음

를

을

을

을

을

을

을

을

을

심  
관원의아들  
의병을곳치  
물

싸하 씨 뿌리는 사름과 거두는 사름이 고치 즐거워할지라 그런즉 속담에 날으 희 사름이 심으로 다른 사름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올로다 내가 너희를 보내여 전에 쥬고호지아니호 거슬 거두게 호노니 다른 사름이 쥬고호엿스매 너희는 그 쥬고호 거슬 밟았다 호시더라 ○ 그 녀인이 증거호야 글으 티 그 사름이 나의 힝호 거슬다 나드려 말호셧다 흠으로 그 성 중에 잇는 사마리아 사름들이 만히 예수를 믿는지라 그런고로 사마리아 사름들이 와서 보고 너희와 고치 계시기를 청호니 예수 | 거고셔 잇흘을 계시매 예수의 말씀을 듯고 믿는 사름이 더 만하 그 녀인드려 말호티 우리가 시방 네 말을 인호야 믿는 거시 아니라 우리 가 친히 듯고 촘 세상에 구주신줄 안다 호더라 ○ 잇흘이 지나매 예수 | 거고셔 뼈나셔 갈닐니로 가시며 친히 증거호시기를 선지쟈가 고향에서는 놉힘을 뱗지못한다 호시고 갈닐니에 니르시니 갈닐니 사름 들이 예수 | 예루살렘에서 절고 직힐 때에 고치 참예호야 여러 호신 일을 본고로 딕접호더라 ○ 예수께서 또 갈닐니 가나에 니르시니 전에 물노 포도주를 문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잇서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三七

四十一

명드렁더니 예수께서 유대로 브터 갈닐니로 오심을 듯고 곳 가셔 보이고  
 청호티 느려 오서서 내 아들의 병을 끗쳐주쇼서 호니 거의 죽게 됨이라  
 예수 | 그로으샤티 이적파 괴스를 보지못호면 도모지 및지아니호리라  
 호신티 신하가 그로으티 쥬여 내 아들이 죽기 전에 느려오쇼서 호거늘  
 예수 | 그로으샤티 도라가라 아들이 살았다 호신티 그 사룸이 예수의  
 호신 말씀을 및고 가더니 느려가는 길에서 종이 맛총 오다가 맛나보고  
 그로으티 아들이 살았느이다 호거늘 쥬인이 무르티 어느 때브터 나았느냐  
 호니 터답호티 어제 미시에 열괴가 업서졌다 호는지라 그 아비가 때를  
 짐작호야 보니 예수께서 말씀호샤티 네 아들이 살았다 호신 그 때라  
 그러호음으로 그 사룸과 온 집이 다 및으니 이 거슨 예수 | 유대에서  
 갈닐니로 도라오신 후에 두번재 흉호신 이적이러라  
 그 후에 유대인의 절괴가 나르매 예수 | 예루살렘에 올나가시더라 ○  
 예루살렘에 잇는 양문 것해 혼 못시 잇스니 히브리 말노 벳에 스다라  
 흉랑 다소시 잇는티 그 안에 숫흔 병인파 쇼경파 절뚝발이와 혈괴  
 다른 사람들이 누엇스니 거괴 설흔여 톱히 된 병인이 잇더라 예수 | 그

수유대인이 예  
를 해코져

누은 거슬 보시고 병이 오랜줄 아시고 무르샤되 네가 낫고 져호느냐  
 호시니 병인이 되답호되 쥬여 물이 동흘 때에 나를 붓드려 못세드려  
 가게 훌사름이 업스매 내가 느려가기 전에 다른 사름이 몬져 드러가  
 는이다 <sup>호거늘</sup><sub>예수</sub> <sup>거</sup> 예수 — 글으샤되 니러나셔 네 자리를 가지고 거려가라  
 호시니 그 사름이 곳 나아서 자리를 가지고 거려가더라 ○ 이 날은  
 안식일이니 <sup>+</sup> 유대인이 <sup>+</sup> 병나은 사름드려 날으되 안식일인되 네가 자리를  
 가져가는 거시 을치아니호니라 <sup>+</sup> 되답호되 <sup>+</sup> 나를 낫게 호신 그 사름이  
 자리를 가지고 거려가라 <sup>+</sup> 호시더라 <sup>+</sup> 훈되 <sup>+</sup> 또 무르티 자리를 가지고 거려  
 가라 <sup>+</sup> 하던 사름이 누구냐호되 <sup>+</sup> 병나은 사름이 고가 누구신지 아지못호니  
 이는 거괴사름이 만흠으로 예수썩셔 임의 피호심이러라 <sup>+</sup> 그 후에 예수 |  
 성던에서 그 사름을 맛나 날으샤되 <sup>+</sup> 네가 <sup>+</sup> 나았스니 다시는 죄를 범치  
 말고 더 큰 증세가 발호가 <sup>+</sup> 넘려호라 <sup>+</sup> 호시니 그 <sup>+</sup> 사름이 곳 유대인의 게  
 가셔 말호되 병낫게 호신 사름이 예수라 <sup>+</sup> 호니 <sup>+</sup> 안식일에 이려호일을  
 힝호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를 펫박호거늘 <sup>예수</sup> — 데희개 날으샤되 내  
 아바지씨서 지금서자 일을 호시매 나도 또 일을 호다 <sup>+</sup> 호시니 유대인

十八 十七 十六 十五 十四 十三 十二 十一 十 十九 八 七

이를 인호야 더욱 죽이고 져 흠은 안식일 만 범홍을 뿐 아니라 하느님을 그  
 아바지라 호야 조괴가 하느님과 일례라 흠이 러라 ○ 그린고로 예수께서  
 무리의 개 닐으샤 되 내가 진실노 진실노 너희께 닐으 노니 아들이 아바  
 지의 헝호신 일을 본 외에는 아모 것도 스스로 흘수 업느니 아바지 써셔  
 헝호시는 거슬 아들도 죄 그와 고치 헝호느니라 아바지 써셔 아들을  
 소랑호샤 그 헝호시는 거슬 다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샤  
 너희로 괴이히녁이게 호시리라 아바지 써셔 죽은 사람을 다시 살나심  
 꼬치 아들도 뜨호 흘고 져호는 자를 살나리라 죄 아바지 써셔 아모 사람도  
 심판호지아니호시고 심판호 일을 다 아들의 개 맛기샤 사람으로 다  
 아들을 공경호기를 아바지 공경호는 것 고치 호께 호섯스니 아들을  
 공경치아니호는 자는 아들을 보내신 아바지를 공경치아니호는 나라  
 내가 진실노 진실노 너희께 닐으 노니 내 말을 듯고 죄 나 보내신 이를  
 및는 사람은 영성을 엉고 땅죄호는 되 나르지아니호리니 소망에 서  
 나와서 성명으로 드러갓느니라 내가 진실노 진실노 너희께 닐으 노니  
 때가 나르려니와 이제도 그 때라 죽은 사람이 하느님 아들의 소리를

잇는자 가영  
을 있음

요한 오장

십팔

드르리니 듯는자는 살아나리라 아바지 썩셔 괴 속에 성명이 잇스매  
 그와 그치 아들의게 주샤 그 속에도 성명이 잇게 허시고 또 인자  
 됨을 인허야 심판궁는 권세를 주셨스니 이려호일을 괴이 히녁이지 말나  
 떼가 나르리니 무덤 속에 잇는 사롬이 다 그 소리를 듯고 나오되 착훈  
 일을 헝흔 사롬은 성명의 부활을 밟고 악훈 일을 헝흔 사롬은 심판의  
 부활을 밟으리라 ○ 내가 아모 것도 스스로 훌수 업고 듯는대로 심판  
 헤노니 내 심판은 공변된지라 이는 내 뜻대로 헤라는 거시 아니오 나를  
 보내신 아바지의 뜻대로 헤라는 거시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허야 종거  
 헤면 촘 종거가 아니라 나를 위허야 종거는이가 따로 잇스니 나를  
 위허야 종거하신 거시 촘인줄 아노라 너희가 전에 사롬을 요한의게  
 보내엿거니와 그가 진리를 위허야 종거허엿느니라 내가 종거 밟는거시  
 사롬의게 밟는거시 아니오 이 그치 말허는 거순 너희로 헤여 곰구원을  
 엿게 헤려 험이로라 요한은 쥐셔 빚최는 등불이니 너희가 일시 그 빚체  
 즐거히 잇기를 원허엿거니와 요한의 종거 보다 더 큰 종거가 내게  
 잇스니 아바지 썩셔 내게 주샤 일우게 헤신바 곳 나의 헝흔 일은

예수를위하는  
야네시증거  
험

요한

성경

六

四七 四六 四五 四四 四三 四二 四一 四〇 三九 三八 三七

아바지께서 나를 보내신 거슬나를 위호야 증거호는 거시오 또 혼나를  
 보내신 아바지께서 임의 나를 위호야 증거 호셨거니와 너희는 아모  
 때에도 그 소리를 듯지못하고 그 형용을 보지못하였는지라 그 말씀이  
 너희 모임에 잇지아니하니 이는 보내신이를 멋지아니함이라 三八 너희가  
 성경을 상고호는 거슨 그 속에 영성이 있는줄 아는 거시니 이 성경  
 이나를 위호야 三九 증거호는 거시로되 너희가 내게와서 성명엇기를 원호지  
 아니호는도다 四〇 내가 사름의게 영광을 취치아니호노라 四一 너희를 아노니  
 하느님을 사랑호는거시 너희 모임에 업는도다 四二 내가 아바지의 일홈으로  
 와도 덕접지아니호나 다른사름이 제일홈으로 오면 덕접호리라 四三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호고 홀노 四四 호나이신 하느님세로브티 오는영광은 구호지  
 아니호니 엇지 나를 멋겟느냐 四五 내가 너희를 아바지께서 송스호를 가성각지  
 말나 송스호는자가 호나이잇스매 곳 모세니 너희가 브라는자라 四六 모세를  
 멋엇더면 또 나를 멋엇스리니 그 쓴 글에 나를 그르쳤스나 그 글도  
 멋지아니호거든 엇지 내 말을 멋겟느냐 호시더라

그 후에 예수

1 갈릴니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니

곳 데베랴

바다라

요한 류장

이십

허다흔 무리가 쌔르는 거슨 병든 사람의 게 이적 힝호신 거슬 봄이라  
예수 | 산에 오르샤 데 조들파 조치 거괴 안즈신지라 그 때에 유월절이  
갓가오니 이는 유대인의 절과라 예수 | 눈을 드러 허다흔 무리가 오는  
거슬 보시고 빌립드려 날으샤티 우리가 어티셔 뼙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케 헛겟느냐 호시니 이는 예수색셔 친히 엇더케 홀 거슬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져호야 이 말솜을 허심이라 빌립이 뒤답호티 이 빅량앗치  
턱을 사서 각 사람이 조공식 먹어도 부족호리이다 호 데조 시몬 베드  
로의 아오 안드레가 예수씨 엿조오티 여괴 혼 으희가 잇서 보리 뼙  
다솟덩이와 물고기 두마리를 가졌느냐 이 솟흔 사람의 게 얼마 되겟습  
느잇가 예수 | 골으샤티 이 사람들을 안케 호라 호시니 그 곳에 잔듸가  
만흔지라 사람이 다 안즈매 수효가 오천 즘 되더라 예수 | 뼙을 가지  
시고 축사호신 후에 안준 사람을 능화주시고 고기도 쇠 여러 사람의  
먹는대로 주사 다빈부르매 예수 | 데조드려 날으샤티 늄은 부스럭 이를  
거두고 내여 브리지 말나 호시니 보리 뼙 다솟덩이로 여례시 먹고 늄은  
부스럭 이를 거두니 열두 광주리에 그득흔지라 여례 사람이 예수의

예수 | 혼자  
괴호심  
예수 | 바다  
를봄아문도  
의개나가심  
ナセウガシム

행궁신 이적을 보고 말궁티이는 촘으로 세상에 오실 선지자라 하더라 ○  
예수 | 대희들이 와서 억지로 조괴를 남군으로 삼으라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물너가시더라 ○ 날이 져 물매 데즈들이 바다 가에  
느려와서 비를 듣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려하니 때가 어두  
었는데 예수는 아직 오시지 아니하시고 또 큰 바람이 부러 파도가

심명의량식  
을마른처주

횡<sup>횡</sup>하신 이적을 보고 말<sup>호</sup>티 이는 촘으로 세상에 오실 선지자라 호더라 ○  
예수 | 데<sup>희</sup>들이 와서 억지로 조<sup>괴</sup>를 넘<sup>군</sup>으로 삼으랴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물너가시더라 ○ 날이 져 물매 데<sup>즈</sup>들이 바다 가에  
느려와서 비를 듣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려호더니 땋가 어두  
엇는티 예수는 아직 오시지 아니호시고 도 콧 바람이 부러 파도가  
니러나는지라 데<sup>즈</sup>들이 비를 져어 십여리 즘 가다가 예수 | 바다를  
붐고 점점 비로 갓가히 오심을 보고 두려워호거늘 골<sup>으</sup>샤티 내니 두려워  
말나 호신티 데<sup>즈</sup>들이 깃버 마자 비에 오르시께 호니 비가 홀연이  
가고 져 호는 따에 나르렀더라 ○ 잇흔날 바다 건너편에 섰는 무리가 비  
흔책 뱗비 다른비 업슴을 보고 뜨 예수 | 데<sup>즈</sup>들과 모치 그비에 오르  
지아니<sup>으</sup>시고 데<sup>즈</sup>들만 간줄 알았더니 두어 책 적은 비가 터<sup>베</sup><sub>라</sub>에<sub>서</sub>  
오니 곳 쥬셔서 춚샤 호신 후에 여러시 떡 먹던 곳에 갓가온지라 무리가  
예수와 데<sup>즈</sup>들이 여고 업슴을 보고 곳 비들을 듣고 예수를 차지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sub>서</sub> 맛나매 골<sup>으</sup>티 랍비여 어느 때에  
여고 오셨는잇가 호니 예수 | 디답호야 골<sup>으</sup>샤티 내가 진실노 진실노

너희게 날으 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거슨 이적을 본 선들이 아니오 떡을  
 먹고 비부른 선들이로다 썩을 량식을 위호야 일호지 말고 영성호도록  
 잇슬 량식을 위호야 훌지어다 이 거슨 인조가 너희의게 줄 거시니 떠는  
 아바지 하느님이 인치신자니라 〔二五〕 너희가 무르티 우리가 엊더케 호여야  
 하느님의 일을 호오릿가 〔二五〕 예수니 터답호야 골으샤티 하느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거시 하느님의 일이니라 〔二五〕 또 무르티 〔二五〕 무솔 이적을 힝호야  
 우리로 보고 믿게 호며 무솔 일을 호시겟는잇가 〔二五〕 우리 조상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엇스니 성경에 날넛스티 하늘에서 누린 량식을 주어 먹게  
 헤셨다 호엿느이다 〔二五〕 호니 예수니 날으샤티 내가 진실노 진실노 너희게  
 날으 노니 하늘에서 누린 량식이 모세가 준 거시 아니라 오직 내가 아바  
 지는 하늘에서 촘 량식으로 너희게 주시느니 하느님의 량식은 하늘에서  
 누려 성명을 세상 사롭의게 주시는 거시라 〔二四〕 호신티 〔二五〕 너희가 골으티 쥬여  
 흥상 이 량식으로 우리를 주쇼셔 호거늘 예수니 골으샤티 내가 곧  
 성명의 량식이니 내게 오는 사롭은 비꼽호지아니흘터이오 나를 믿는  
 사롭은 영원히 목모르지아니호리라 〔二六〕 전에 내가 너희드려 날으 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멋지아니호는도다 호엿거니와 아바지 써셔 내게 주시는자는  
 다 내게로 올 거시오 또 내게 오는자를 결단코 내여 브리지아니호리라  
 내가 하늘노셔 누려온 거슨 내 쪽을 헹호랴는 거시 아니오 나를 보내  
 신이의 쪽을 헹호려함이니 내게 주신자는 내가 호나도 일허브리지아  
 니호고 모조막 날에 다시 살닐터이니 이 거시나를 보내신이의 쪽이라  
 아들을 보고 멋는 사람은 다 영성을 업을터이니 이 거시 내 아바지의  
 쪽이라 또 모조막 날에 내가 다시 살니리라 호시더라 ○ 조괴가 하늘  
 노셔 누려온 량식이라 호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를 원망호야 골으티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니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지못호느냐 제가  
 지금 잇지호야 하늘노셔 누려왔다 호느냐 호니 예수니 터답호야 골으  
 샤티 너희는 서로 말호야 원망호지말나 나를 보내신 아바지 써셔 잇쓸  
 지아니호면 아모던지 내게 올수 업스니 오는 사람은 내가 모조막 날에  
 다시 살니리라 선지자의 글에 널넛스티 더희가 다하는님의 그르치심을  
 밟으리라 호엿는고로 아바지의 말씀을 듯고 비흔 사람마다 내게로  
 오리니 이는 누가 아바지를 보았다 흘이 아니오 오직 하는님의 계서

온자 만 아바지를 보았다 흠이라 내가 진실노 진실노 너희께 날으 노니  
잇는 사람은 영성이 있는니 내가 곳 성명의 량식이로라 너희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그 후에 죽엇거니와 이는 하늘노셔 누려온  
량식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흘지라 나는 하늘노셔  
누려온 성명의 량식이니 사람이 이 량식을 먹은즉 영성호리라 내가  
줄 량식은 곳내 살이니 세상 성명을 위호야 주는 거시로라 호시더라 ○  
이럼으로 유대인이 서로 다투와 골으 터 이 사람이 엊지 능히 제 살을  
우리의 개주어 먹게 헤갯느냐 호니 예수니 일으샤 터 내가 진실노 진실노  
너희께 날으노니 인조의 살을 먹지아니하고 인조의 피를 마시지아니  
호면 너희 속에 성명이 업는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성이 있고 모조막 날에 내가 다시 살날리이니 내 살은 촘 먹을  
거시오 내 피는 촘마실 거시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는니 살아계신 아바지께서 나를  
보내시매 나도 아바지로 호야 사노니 나를 먹는 사람도 이곳치 나로  
호야 살나라 이 거시 하늘노셔 누려온 량식이니 너희 조상이 먹어도

문도들이만 六十一  
히물너감 六十二

죽은 것 끄지안코 이 량식을 먹는자는 영원히 살니라 호시니 이 말씀은  
 예수 | 가버나움 회당에서 사름을 마른 치실 때에 호신 말씀 이러라 ○  
 데조들이 듯고 여려시 말호티 이 말씀이 어려오니 누가 능히 촘아  
 듯겟느냐 호더라 예수 六十三 써셔 스스로 데조들이 이 말씀을 원망호는 줄  
 아시고 글으샤되 이 말이 너희께 슬흐냐 六十四 너희들이 인조가 이전 있던  
 곳으로 올나가는 거슬 보면 엇더캐 호랴느냐 살펴주시는이는 신이시니  
 육신은 무익호니라 내가 너희께 널으 말이 신이오 또 성명이나 六十五 그러나  
 너희 중에 멋지아니호는 사름이 있는나라 호심은 예수 써셔 처음브터  
 멋지아니호는 자가 누구며 장조 잡아 줄자가 누군지 아심이러라  
 글으샤되 이 려홍으로 전에 말호기를 내 아바지 써셔 오게 호야 주자아  
 니호시면 사름이 내게 올수 업다호 엿노라 호시더라 ○ 이로써 데조들이  
 만히 물너가고 다시 쓰르지 아니호더라 예수 | 열두 데조드려 널으샤되  
 너희도 췌하고 져호느냐 호신되 시몬 베드 六十七로 가 되답호티 쥬여 영성호는  
 말씀이 계시매 우리가 뉘내로 가오렷가 六十八우리가 쥬써서 하느님의 거룩  
 호신자신줄 이왕브터 멋고 아옵느이다 예수 | 되답호샤되 내가 너희

베드로 가에 六十九  
수 | 하느님 七〇  
의아들이신 七一  
줄을암 七二

열두 사를을 턱 호지아니호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혼 사를은 마귀  
나라 호시니 이 말씀은 가로 시몬의 아들 유다를 그르치신 거시라 그도  
열둘 중에 호나이니 장초 예수를 잡아줄 사를이려라

예루살렘  
에 올나가  
절괴직히심  
을 동성들이  
권함



七

四 三 二

이 후에 예수 | 갈닐니로 든니시고 유대로 든니자 아니호 려호심은  
유대인이 죽이려 흘이려라 유대인의 절괴가 갖가오니 이는 장막절이라  
그런고로 예수의 동성들이 날으되 여괴서 떠나 유대로 가서 예조들을 노  
호여곰 당신의 힕호는 일을 보게 호쇼셔 일홀이 나라나기를 구호면서  
뭇쳐서 일호는 사를이 업느니 이 일을 힕호랴거든 스스로 세상에 나타  
내라 흘은 그 동성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 흘이려라 예수 | 골으샤되 내  
때는 아직 니르지 아니호 엿거니와 너희 때는 흥상잇느니 세상이 너희를  
뭐워호지못호나 나를 뭐워호느니 이는 내가 그의 호는 일이 악흘을  
증거흘이라 너희는 올나가서 절괴를 직히라 나는 아직 절괴를 직히러  
가지아니 흘은 내 고약이 아직 초지아니 흘이로라 이 말씀을 호시고

갈닐니에 계시더라 ○ 그 동성들이 올나간 후에 예수도 절괴를 직히러  
올나가실서 나타나게 가지아니호시고 만히 가시니라 절괴를 당호매  
가심 살빔에 올나 | 만히 예루

十一

十

九 八

七 五

四 三 二

七

성년에 서무  
리를 마른 치

유대인들이 예수를 차자 굴으니 어찌 잇느냐하고 예수를 인호야 여러  
사람 가온디 셔 변론이 만하 혹은 착한 사람이라고도 하며 혹은 굴으니  
아니라 무리를 미혹하게 혼다고도 하나 블히의론하는 사람이 업스니  
이는 유대인을 두려워 흠이 러라 ○ 절과 가온디 날에 예수 | 성년에  
오르샤 사람을 마른 치시니 유대인들이 괴이히 넉여 굴으니 이 사람이  
비호지 아니호 옛거늘 엊지 글을 아느냐 하니 예수 | 터답호야 굴으니 샤  
내 교훈은 내 교훈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이의 교훈이니라 사람이 하는  
님의 쫓대로 호라고 호면 이 교훈이 하는 님으로 셔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호는지 알니라 스스로 말호는자는 촘되니 그 속에 불의 혼 거시 업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영광을 구호는자는 촘되니 그 속에 불의 혼 거시 업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를 범을 주지 아니호 옛느니 너희 중에 하나도 직히는 사람이 업고 엊지  
호야 나를 죽이리라 호느니 하시니 무리가 터답호되 너는 샤귀들 넛도 다  
누가 너를 죽이리라 호겟느니 예수 | 터답호야 굴으니 샤되 내가 혼 가지  
일 헹흔 거슬 너희가 다 괴이히 넉이 눈도다 모세가 너희께 할례를 주었  
스니 실상은 모세의 계셔 난 거시 나오 조상의 계셔 난 거시라 너희가

요한 칠장

이십팔

안식일에 사禄의 제 할례를 주고 사禄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밟는 거시  
 모세의 를밥을 어찌지아니호려함이니 내가 안식일에 사禄을 온전히  
 곳첫거늘 너희가 엿지 노여워호는냐 외모로 판단호지말고 공의의  
 판단으로써 판단호라 호시더라 ○ 예루살렘 사禄 중에서 혹이 말호되  
 무리가 죽이고 져호는 사禄이 이 사禄이 아니냐 시방 드러나게 말호되  
 너희가 아모 말도 업스니 엿지 판원들이 이 사禄을 촘 그리스도신줄  
 알았는고 그러나 우리가 이 사禄이 어티로 왔는지 알거니와 그리스도  
 셰셔 오시면 어티로 오시는지 아는 사禄이 업스리라 호니 예수 성면  
 에서 사禄을 그르치시며 웨쳐 글으샤티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티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거시 아니로라 오직 나를 보내신이는  
 촘아시니 너희는 아지못호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의제서 나고  
 쪐호 그가 나를 보내심이라 호신터 너희가 예수를 잡고 져호나 손을  
 드러 잡는 사禄이 업스니 이는 그때가 아직 나르지 아니함이러라 무리  
 중에 사禄이 만히 멋고 말冲动 그리스도 셰셔 오실때에 힝호실이적이  
 엇지 이 사禄의 힝호것보다 더 만흐랴호니 바리시교인이 무리의 마만히

의론호는 거슬 듯고 제소제장으로 더브러 관속을 보내여 잡으랴 호니  
예수 | 닐으샤티 내가 잠시 너희와 끗치 있다가 나를 보내신이의제로  
도라가겟스니 (三四) 너희가 나를 차자도 맛나지못홀터이오 나잇는 곳에도  
오지못호리라 (三五) 호시니 그 유대인이 서로 무려 굴으티 이사람이 어듸로  
가기에 우리가 떠를 맛나지못호리오 (三六) 헬나 사람 중에 흑허사는 유대인  
의제로 가셔 (三七) 헬나 사람을 그르칠터인가 제 말이 나를 차자도 맛나지  
못홀터이오 (三八) 나잇는 곳에도 오지못호리라 (三九) 호니 이거시 엇지흔 말이냐  
호더라 ○ 절괴 쪽 날은 큰 날이라 예수 | 서서 웨쳐 굴으샤티 사람이  
목 모르거든 내제로 와서 마시라 (四十) 사람이 나를 (四一) 믿으면 성경에 닐음 끗치  
그 비에서 성슈가 강로치 (四二) 흐르리라 (四三) 호시니 이는 믿는 사람의 밧을  
성신을 말씀호신 거시니 이 때에 성신이 는리지아니호심은 예수 |  
아직 영광을 엊지못호심이러라 (四四) 무리가 이 말씀을 듯고 혹은 촘으로  
선지자라고도 호며 혹은 (四五) 그리스도라고도 호며 혹은 그리스도 | 엊지  
갈닐니에서 나오겟느냐 (四六) 성경에 닐으시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조손이  
될터이니 다윗의 고향 벳을네헴 촌에서 나오리라 호자아니호엿느냐

성슈를 허락 (四七)  
호임

무리가 분분 (四八)  
히예수를의  
론호



우리를 명호야 이리호 계집은 돌노 치라 호였는지라 선성은 엉더케  
 말호겟습는잇가 흄은 예수를 시험호야 송스흘 빙거를 엇고저 흄이러라  
 예수니 몸을 굽히샤 손가락으로 짜에 글시를 쓰시니 그 사람들이 뭇기를  
 마지아니호는지라 니러나 글으샤티 너희 중에 누구던지 죄 업는  
 사람이 몬져 돌노 치라 호시고 또 몸을 굽히샤 손가락으로 짜에 글시를  
 쓰시니 이 말씀을 듯고 어룬브터 으희서지 낫낫치 다 나가고 예수만  
 계시고 계집은 그저 그 가온티 셋는지라 예수니 니러나셔 보시고 널으  
 샤티 너인아 더희가 어티잇는냐 죄주는 사람이 업는냐 터답호티 쥬여  
 업는이다 예수니 글으샤티 나도 또 죄를 주지아니호 노니 가셔 다시  
 죄를 범치 말나 호시더라 ○ 예수니 또 널너 글으샤티 나는 세상의 빛치니  
 나를 썬르는 사람은 어두운 터 힝호지아니호 고 성명의 빛출 엇으리라  
 호시거늘 바리시교인들이 글으티 네가 너를 위호야 증거호니 네 증거  
 호는 거손 촘되지 아니호도다 예수니 터답호야 글으샤티 내가 나를  
 위호야 증거호되 내 증거가 촘되니 나는 내가 어티셔 오며 어티로 갈  
 거슬 아나 너희는 내가 어티셔 오며 어티로 갈 거슬 아지못 흄이라

요한 팔장

삼십이

너희는 외모로 사를을 판단하나 나는 아모 사름도 판단치 아니하노니  
 만일 내가 판단하면 내 판단이 촘되니 내가 혼자 잇는 거시 아니오 나를  
 보내신 아바지께서 나와 고치 계심이라 또 혼 너희 률법에 날넷스티 두  
 사름의 증거가 촘되다 나 옛스니 나는 나를 위하야 증거하는자요 나를  
 보내신 아바지도 나를 위하야 증거하시느니라 그럼으로 너희가 무르티  
 네 아바지가 어티 있느냐 예수니 되답하사티 너희가 나를 아지못하고  
 내 아바지도 아지못하는도다 나를 알엇더면 내 아바지도 알았스리라  
 하시니 이 말씀은 성던에서 그르치실 때에 연보케 압해셔 호션스나  
 잡는 사름이 업는 거슨 때가 나르지아니 하이러라 ○ 또 닐으사티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온티셔 죽고 내가 가는 곳은  
 너희가 나르지못하리라 유대인들이 그로으티 여가간 곳에 우리는 가지  
 못하리라 하니더가 조절하려 흠인가 그로으사티 너희는 아래서 나고 나는  
 우에서 낫스매 너희는 이 세상에 붓고 나는 이 세상에 붓지 아니하고로  
 너희드려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온티셔 죽으리라 호옛스니 내가  
내인줄을 너희가 미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온티셔 죽으리라 호신태

여희가 말호되 네가 누구냐 예수니 그로니샤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가  
말호자니라 내가 너희를 말호고 판단호거시 만히 잇스니 나를 보내  
신이가 촘되시매 내가 보내신이의게 드른거슬 셰상 사롭의게 말호노라  
호시니 여희는 아바지를 그르쳐 말씀호신줄을 써듯지못호더라 예수니  
또 골으샤티 너희는 인조를 든 후에 내가 내인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모 것도 호지아니호고 아바지썩셔 그르치신대로 내가 말호는 줄도  
알니라 나를 보내신이가 나와 그치 계시니 아바지썩셔 나를 혼자  
두지아니호시는 거슨 내가 흥상 그 깃버호시는 일을 힁함이라 호시니  
이 말씀을 호시매 여러사람이 멋더라 ○ 예수니 또 임의 멋은 유대인  
드려 널으샤티 너희가 내 도에 흥상잇스면 촘내 데즈가 될리이오 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노하주리라 여희들이 터답호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조손이라 전브터 늘의 종이 되지아니호였거늘 엊지우리를  
노하주리라 호느냐 예수니 터답호샤티 내가 진실노 진실노 너희께  
널으노니 죄를 범호는 사람은 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잇지  
못호되 아들은 영원히 잇는니 그런고로 아들이 너희를 노하주면 너희가

잇는자는 진  
리가 노하줌  
죄의종이됨  
육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조손이나꽃  
죄의종이됨

三六

三七

三八

三九

四〇

四一

四二

四三

四四

四五

四六

四七

四八

四九

五〇

요한 팔장

삼십 삼

총 노히리라 나도 알거니와 너희가 아브라함의 조손이로되 나를 죽이  
 고져호는 거슨 내 도가 네 모임에 잇슬 곳이 업슴이로다 내가 말호는  
 거슨 내 아바지의께서 본 거시오 너희가 헹호는 거슨 너희 아비의께  
 드른 거시니라 터답호야 글으티 우리 아바지는 아브라함이라 호니  
 예수 | 글으샤티 너희가 아브라함의 조손이면 아브라함의 일을 헹흘러  
 이어늘 지금 나를 죽이고져호는도다 나는 하느님께 드른 진리를 너희  
 의께고르치는사람이니 아브라함은 이러케 허지아니호엿는지라 너희가  
 너희 아비의 일을 헹호는도다 터답호티 우리가 음란호 터셔 나지아니  
 허엿고 아바지호나 쟁이시니 곳 하느님이로다 예수 | 글으샤티 하느  
 님아 너희 아바지시면 너희가 나를 사랑호지라 내가 하느님께로 나서  
 왓노니 내가 스스로 온 거시 아니오 아바지께서 나를 보내신 거신티  
 엇지호야 내가 말을 아지못호는 냐 내 도를 듯지못호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의께서 낫스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헹호고져호는니라  
 처음부터 데가 살인호자니 진리에 속호지아니호은 데의 모임에서 나오는대로 말호는 거시니 거죽  
 업슴이오 거죽 말호는 거슨 모임에서 나오는대로 말호는 거시니 거죽

유대인 이예  
수를 비방함

四六  
四七  
四八  
四九  
五〇

말호는자도 되고 거죽 말호는자의 아비도 되였는니라 내가 진리를 말함  
으로 너희가 나를 멋지아니호니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척잡겠는니  
내가 진리를 말호매 엇지호야 나를 멋지아니호는니 하느님께 속한  
사람은 하느님의 말씀을 드를터이로되 너희가 듯지아니함은 너희가  
하는 님께 속호지아니함이로다 유대인이 터답호야 굴으터 우리 말은  
네가 사마리아 사람이오 또 샤귀가 들넷다호는 말이 올치아니호니  
예수니 터답호샤티 나는 샤귀들닌 거시 아니라 다만 내 아바지를 공경  
함이어늘 너희가 나를 유효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치아니호나 구호  
시고 판단호시는이가 계시니라 내가 진실노 진실노 너희드려 닐으 노니  
사람이 내 말을 적히면 죽는 거슬 영원히 보지못호리라 유대인이 굴으터  
우리가 지금 네가 샤귀들닌줄을 아노라 아브라함도 죽고 여러 선지자도  
죽엇거늘 네가 말호기를 사람이 내 말을 적히면 죽는 거슬 영원히  
보지못호리라 호니 우리 조상 아브라함도 죽엇거늘 너는 그 보다 더  
크며 여러 선지자도 죽엇거늘 너는 누구라 호는니 예수니 터답호샤티  
내가 나를 영화롭게 호면 내 영화가 헛되려니와 나를 영화롭게 호시

五四  
五三  
五二  
五一  
五〇

요한 구장

삼십륙

예수 | 아브라함을  
나면서 쇼경된 자를  
갖치심

九

五五

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너희가 말하는 바 너희 하느님이시라 너희는 아지  
못 헤되 나는 아노니 내가 아지 못 훔다 헤면 나도 너희 고치 거죽 말  
하는 자라 나는 알고 또 그 말씀을 직히 노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거슬 즐거워 헤다가 보고 깃버 헤였느니라 유대인이 굽으 터

네가 나히 오십도 못 되여 아브라함을 보았느니 예수 | 굽으 샤티 내가

진실노 진실노 너희 드려 널으 노니 아브라함이 잊기 전에 내가 잊느니라

호시니 너희가 돌을 드려 치려 헤거늘 예수 | 피호 샤성던에서 나가시니라

예수 | 길 가실 때에 나면서 눈먼 사름 호나를 보시니 데조들이 무러

글으 터 랍비여 이 사름이 나면서 눈먼 거시 뉘 죄닛가 제 죄닛가

제 부모의 죄닛가 예수 | 터답 헤샤티 이 사름이 죄를 범한 것도 아니오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도 아니오 그의께서 하느님의 헤시는 거슬 드려

내고 져 헤심이라 때가 아직 낫이 매 나를 보내신이의 일을 우리가 맛당히

힝 헤거니와 밤이 오면 사름이 일을 헝 헤수 업스리니 내가 세상에 잊서

서는 곳 세상의 빛치라 헤시더라 말씀을 못 초시고 땀에 춤을 비앗하

진흙을 낙이 샤 터 실노 암 못에 가셔 씨스라

六

五

四

五九

五八

五七

五五

호시니 실노암은 번역 호면 보낸 쪽이 러라 가셔 췄고 오매 보더라 리웃  
사름과 멋 전에 보고 걸인인 줄을 아던 사름들이 굴으되 이는 안져서  
구걸호던 사름이 아니냐 호니 혹은 그 사름이라고도 호며 혹은 말호되  
아니라 그 사름 그다고도 호거늘 제 말이 내로라 호니 데희가 무르되  
엇지호야 네 눈을 셋느냐 터답호되 예수라 호는 사름이 진흙을 닦여  
내 눈에 바르고 날드려 실노암에 가셔 씨스라 호시기에 가셔 씨셨더니  
곳 본다 호니 데희가 굴으되 그 사름이 어티 잇느냐 훈되 굴으되 아지  
못호다 호더라 ○ 데희가 전에 눈머벗던 사름을 다리고 바리서교인의 계  
가니 예 수께서 진흙을 닦여 눈을 쓰게 호신 날은 안식일인고로 바리서  
교인이 또 엇지호야 보게 되였느냐 무르니 굴으되 그 사름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췄고 보노라 호니 바리서교인 중에 혹은 말호되  
이 사름이 안식일을 직히지 아니호니 하느님께로 온 사름이 아니라 호며  
혹은 말호되 사름이 죄가 잇고서 엇지 이러한 이적을 힝호겟느냐 호야  
피초 변론이 되였더니 또 눈머벗던이 드려 무르티 그 사름이 네 눈을  
쓰게 호였스니 너는 그를 엉더호 사름이라 호느냐 터답호되 선지자라

안식일에  
꽃치심으로  
바리서인의  
죄주고져함

十

十一

十二

十三

十四

十五

八

요한 구장

삼십팔

혼디 유대인이 눈머렸다가 보게 된 거슬 멋지아니하다가 그 부모를  
 불너 무르티 이 사름이 네 아들이냐 나면서 눈머렸다 하는자냐 지금은  
 엇지호야 보느냐 흐니 그 부모가 터답호야 글으티 이사람이 우리아들  
 이오 죽 나면서 눈먼줄도 아나 지금 엇지호야 보는지 우리는 아지못  
 흐며 누가 그 눈을 쓰게 흐였는지 아지못하는지라 더가 장성호니 더드려  
 무러보시오 더가 터답호리이다 흐니 그 부모가 이 말하는 거슨 유대  
 인을 무서워함이니 유대인들이 의론을 임의 명호야 누구던지 예수를  
 그리스도인줄 안다 흐면 회당에 쫓차 내여보내겟다 흠이라 이 럴 으로  
 그 부모가 말호기를 더가 장성호니 더드려 무러보라 흐더라 더희가  
 본리 눈머렸던 사름을 두번재 불너 날으티 너는 영광을 하느님션로  
 돌녀보내라 우리는 더사름이 죄인인줄을 아노라 흐니 터답호티 그가  
 죄인인지 아닌지 내가 아지못호나 흐 가지 아는거슨 내가 이전에는  
 눈머렸다가 지금은 보노라 혼디 죽 무르티 그 사름이 무숨일을 힝호야  
 베 눈을 쓰게 흐엿느냐 터답호티 내가 이제 너희께 날너도 듯지아니  
 흐고 엇지호야 죽 듯고십느냐 너희도 그 예조가 되라고 그리호느냐

여희가 곳 쑤지져 골으티 너는 그 데조나 우리는 모세의 데조라 하느  
님이 모세의 개는 말씀 <sup>(2)</sup> <sup>(3)</sup> <sup>(4)</sup> <sup>(5)</sup> <sup>(6)</sup> <sup>(7)</sup> <sup>(8)</sup> <sup>(9)</sup> <sup>(10)</sup> <sup>(11)</sup> <sup>(12)</sup> <sup>(13)</sup> <sup>(14)</sup> <sup>(15)</sup> <sup>(16)</sup> <sup>(17)</sup> <sup>(18)</sup> <sup>(19)</sup> <sup>(20)</sup> <sup>(21)</sup> <sup>(22)</sup> <sup>(23)</sup> <sup>(24)</sup> <sup>(25)</sup> <sup>(26)</sup> <sup>(27)</sup> <sup>(28)</sup> <sup>(29)</sup> <sup>(30)</sup> <sup>(31)</sup> <sup>(32)</sup> <sup>(33)</sup> <sup>(34)</sup> <sup>(35)</sup> <sup>(36)</sup> <sup>(37)</sup> <sup>(38)</sup> <sup>(39)</sup> <sup>(40)</sup> <sup>(41)</sup> <sup>(42)</sup> <sup>(43)</sup> <sup>(44)</sup> <sup>(45)</sup> <sup>(46)</sup> <sup>(47)</sup> <sup>(48)</sup> <sup>(49)</sup> <sup>(50)</sup> <sup>(51)</sup> <sup>(52)</sup> <sup>(53)</sup> <sup>(54)</sup> <sup>(55)</sup> <sup>(56)</sup> <sup>(57)</sup> <sup>(58)</sup> <sup>(59)</sup> <sup>(60)</sup> <sup>(61)</sup> <sup>(62)</sup> <sup>(63)</sup> <sup>(64)</sup> <sup>(65)</sup> <sup>(66)</sup> <sup>(67)</sup> <sup>(68)</sup> <sup>(69)</sup> <sup>(70)</sup> <sup>(71)</sup> <sup>(72)</sup> <sup>(73)</sup> <sup>(74)</sup> <sup>(75)</sup> <sup>(76)</sup> <sup>(77)</sup> <sup>(78)</sup> <sup>(79)</sup> <sup>(80)</sup> <sup>(81)</sup> <sup>(82)</sup> <sup>(83)</sup> <sup>(84)</sup> <sup>(85)</sup> <sup>(86)</sup> <sup>(87)</sup> <sup>(88)</sup> <sup>(89)</sup> <sup>(90)</sup> <sup>(91)</sup> <sup>(92)</sup> <sup>(93)</sup> <sup>(94)</sup> <sup>(95)</sup> <sup>(96)</sup> <sup>(97)</sup> <sup>(98)</sup> <sup>(99)</sup> <sup>(100)</sup> <sup>(101)</sup> <sup>(102)</sup> <sup>(103)</sup> <sup>(104)</sup> <sup>(105)</sup> <sup>(106)</sup> <sup>(107)</sup> <sup>(108)</sup> <sup>(109)</sup> <sup>(110)</sup> <sup>(111)</sup> <sup>(112)</sup> <sup>(113)</sup> <sup>(114)</sup> <sup>(115)</sup> <sup>(116)</sup> <sup>(117)</sup> <sup>(118)</sup> <sup>(119)</sup> <sup>(120)</sup> <sup>(121)</sup> <sup>(122)</sup> <sup>(123)</sup> <sup>(124)</sup> <sup>(125)</sup> <sup>(126)</sup> <sup>(127)</sup> <sup>(128)</sup> <sup>(129)</sup> <sup>(130)</sup> <sup>(131)</sup> <sup>(132)</sup> <sup>(133)</sup> <sup>(134)</sup> <sup>(135)</sup> <sup>(136)</sup> <sup>(137)</sup> <sup>(138)</sup> <sup>(139)</sup> <sup>(140)</sup> <sup>(141)</sup> <sup>(142)</sup> <sup>(143)</sup> <sup>(144)</sup> <sup>(145)</sup> <sup>(146)</sup> <sup>(147)</sup> <sup>(148)</sup> <sup>(149)</sup> <sup>(150)</sup> <sup>(151)</sup> <sup>(152)</sup> <sup>(153)</sup> <sup>(154)</sup> <sup>(155)</sup> <sup>(156)</sup> <sup>(157)</sup> <sup>(158)</sup> <sup>(159)</sup> <sup>(160)</sup> <sup>(161)</sup> <sup>(162)</sup> <sup>(163)</sup> <sup>(164)</sup> <sup>(165)</sup> <sup>(166)</sup> <sup>(167)</sup> <sup>(168)</sup> <sup>(169)</sup> <sup>(170)</sup> <sup>(171)</sup> <sup>(172)</sup> <sup>(173)</sup> <sup>(174)</sup> <sup>(175)</sup> <sup>(176)</sup> <sup>(177)</sup> <sup>(178)</sup> <sup>(179)</sup> <sup>(180)</sup> <sup>(181)</sup> <sup>(182)</sup> <sup>(183)</sup> <sup>(184)</sup> <sup>(185)</sup> <sup>(186)</sup> <sup>(187)</sup> <sup>(188)</sup> <sup>(189)</sup> <sup>(190)</sup> <sup>(191)</sup> <sup>(192)</sup> <sup>(193)</sup> <sup>(194)</sup> <sup>(195)</sup> <sup>(196)</sup> <sup>(197)</sup> <sup>(198)</sup> <sup>(199)</sup> <sup>(200)</sup> <sup>(201)</sup> <sup>(202)</sup> <sup>(203)</sup> <sup>(204)</sup> <sup>(205)</sup> <sup>(206)</sup> <sup>(207)</sup> <sup>(208)</sup> <sup>(209)</sup> <sup>(210)</sup> <sup>(211)</sup> <sup>(212)</sup> <sup>(213)</sup> <sup>(214)</sup> <sup>(215)</sup> <sup>(216)</sup> <sup>(217)</sup> <sup>(218)</sup> <sup>(219)</sup> <sup>(220)</sup> <sup>(221)</sup> <sup>(222)</sup> <sup>(223)</sup> <sup>(224)</sup> <sup>(225)</sup> <sup>(226)</sup> <sup>(227)</sup> <sup>(228)</sup> <sup>(229)</sup> <sup>(230)</sup> <sup>(231)</sup> <sup>(232)</sup> <sup>(233)</sup> <sup>(234)</sup> <sup>(235)</sup> <sup>(236)</sup> <sup>(237)</sup> <sup>(238)</sup> <sup>(239)</sup> <sup>(240)</sup> <sup>(241)</sup> <sup>(242)</sup> <sup>(243)</sup> <sup>(244)</sup> <sup>(245)</sup> <sup>(246)</sup> <sup>(247)</sup> <sup>(248)</sup> <sup>(249)</sup> <sup>(250)</sup> <sup>(251)</sup> <sup>(252)</sup> <sup>(253)</sup> <sup>(254)</sup> <sup>(255)</sup> <sup>(256)</sup> <sup>(257)</sup> <sup>(258)</sup> <sup>(259)</sup> <sup>(260)</sup> <sup>(261)</sup> <sup>(262)</sup> <sup>(263)</sup> <sup>(264)</sup> <sup>(265)</sup> <sup>(266)</sup> <sup>(267)</sup> <sup>(268)</sup> <sup>(269)</sup> <sup>(270)</sup> <sup>(271)</sup> <sup>(272)</sup> <sup>(273)</sup> <sup>(274)</sup> <sup>(275)</sup> <sup>(276)</sup> <sup>(277)</sup> <sup>(278)</sup> <sup>(279)</sup> <sup>(280)</sup> <sup>(281)</sup> <sup>(282)</sup> <sup>(283)</sup> <sup>(284)</sup> <sup>(285)</sup> <sup>(286)</sup> <sup>(287)</sup> <sup>(288)</sup> <sup>(289)</sup> <sup>(290)</sup> <sup>(291)</sup> <sup>(292)</sup> <sup>(293)</sup> <sup>(294)</sup> <sup>(295)</sup> <sup>(296)</sup> <sup>(297)</sup> <sup>(298)</sup> <sup>(299)</sup> <sup>(300)</sup> <sup>(301)</sup> <sup>(302)</sup> <sup>(303)</sup> <sup>(304)</sup> <sup>(305)</sup> <sup>(306)</sup> <sup>(307)</sup> <sup>(308)</sup> <sup>(309)</sup> <sup>(310)</sup> <sup>(311)</sup> <sup>(312)</sup> <sup>(313)</sup> <sup>(314)</sup> <sup>(315)</sup> <sup>(316)</sup> <sup>(317)</sup> <sup>(318)</sup> <sup>(319)</sup> <sup>(320)</sup> <sup>(321)</sup> <sup>(322)</sup> <sup>(323)</sup> <sup>(324)</sup> <sup>(325)</sup> <sup>(326)</sup> <sup>(327)</sup> <sup>(328)</sup> <sup>(329)</sup> <sup>(330)</sup> <sup>(331)</sup> <sup>(332)</sup> <sup>(333)</sup> <sup>(334)</sup> <sup>(335)</sup> <sup>(336)</sup> <sup>(337)</sup> <sup>(338)</sup> <sup>(339)</sup> <sup>(340)</sup> <sup>(341)</sup> <sup>(342)</sup> <sup>(343)</sup> <sup>(344)</sup> <sup>(345)</sup> <sup>(346)</sup> <sup>(347)</sup> <sup>(348)</sup> <sup>(349)</sup> <sup>(350)</sup> <sup>(351)</sup> <sup>(352)</sup> <sup>(353)</sup> <sup>(354)</sup> <sup>(355)</sup> <sup>(356)</sup> <sup>(357)</sup> <sup>(358)</sup> <sup>(359)</sup> <sup>(360)</sup> <sup>(361)</sup> <sup>(362)</sup> <sup>(363)</sup> <sup>(364)</sup> <sup>(365)</sup> <sup>(366)</sup> <sup>(367)</sup> <sup>(368)</sup> <sup>(369)</sup> <sup>(370)</sup> <sup>(371)</sup> <sup>(372)</sup> <sup>(373)</sup> <sup>(374)</sup> <sup>(375)</sup> <sup>(376)</sup> <sup>(377)</sup> <sup>(378)</sup> <sup>(379)</sup> <sup>(380)</sup> <sup>(381)</sup> <sup>(382)</sup> <sup>(383)</sup> <sup>(384)</sup> <sup>(385)</sup> <sup>(386)</sup> <sup>(387)</sup> <sup>(388)</sup> <sup>(389)</sup> <sup>(390)</sup> <sup>(391)</sup> <sup>(392)</sup> <sup>(393)</sup> <sup>(394)</sup> <sup>(395)</sup> <sup>(396)</sup> <sup>(397)</sup> <sup>(398)</sup> <sup>(399)</sup> <sup>(400)</sup> <sup>(401)</sup> <sup>(402)</sup> <sup>(403)</sup> <sup>(404)</sup> <sup>(405)</sup> <sup>(406)</sup> <sup>(407)</sup> <sup>(408)</sup> <sup>(409)</sup> <sup>(410)</sup> <sup>(411)</sup> <sup>(412)</sup> <sup>(413)</sup> <sup>(414)</sup> <sup>(415)</sup> <sup>(416)</sup> <sup>(417)</sup> <sup>(418)</sup> <sup>(419)</sup> <sup>(420)</sup> <sup>(421)</sup> <sup>(422)</sup> <sup>(423)</sup> <sup>(424)</sup> <sup>(425)</sup> <sup>(426)</sup> <sup>(427)</sup> <sup>(428)</sup> <sup>(429)</sup> <sup>(430)</sup> <sup>(431)</sup> <sup>(432)</sup> <sup>(433)</sup> <sup>(434)</sup> <sup>(435)</sup> <sup>(436)</sup> <sup>(437)</sup> <sup>(438)</sup> <sup>(439)</sup> <sup>(440)</sup> <sup>(441)</sup> <sup>(442)</sup> <sup>(443)</sup> <sup>(444)</sup> <sup>(445)</sup> <sup>(446)</sup> <sup>(447)</sup> <sup>(448)</sup> <sup>(449)</sup> <sup>(450)</sup> <sup>(451)</sup> <sup>(452)</sup> <sup>(453)</sup> <sup>(454)</sup> <sup>(455)</sup> <sup>(456)</sup> <sup>(457)</sup> <sup>(458)</sup> <sup>(459)</sup> <sup>(460)</sup> <sup>(461)</sup> <sup>(462)</sup> <sup>(463)</sup> <sup>(464)</sup> <sup>(465)</sup> <sup>(466)</sup> <sup>(467)</sup> <sup>(468)</sup> <sup>(469)</sup> <sup>(470)</sup> <sup>(471)</sup> <sup>(472)</sup> <sup>(473)</sup> <sup>(474)</sup> <sup>(475)</sup> <sup>(476)</sup> <sup>(477)</sup> <sup>(478)</sup> <sup>(479)</sup> <sup>(480)</sup> <sup>(481)</sup> <sup>(482)</sup> <sup>(483)</sup> <sup>(484)</sup> <sup>(485)</sup> <sup>(486)</sup> <sup>(487)</sup> <sup>(488)</sup> <sup>(489)</sup> <sup>(490)</sup> <sup>(491)</sup> <sup>(492)</sup> <sup>(493)</sup> <sup>(494)</sup> <sup>(495)</sup> <sup>(496)</sup> <sup>(497)</sup> <sup>(498)</sup> <sup>(499)</sup> <sup>(500)</sup> <sup>(501)</sup> <sup>(502)</sup> <sup>(503)</sup> <sup>(504)</sup> <sup>(505)</sup> <sup>(506)</sup> <sup>(507)</sup> <sup>(508)</sup> <sup>(509)</sup> <sup>(510)</sup> <sup>(511)</sup> <sup>(512)</sup> <sup>(513)</sup> <sup>(514)</sup> <sup>(515)</sup> <sup>(516)</sup> <sup>(517)</sup> <sup>(518)</sup> <sup>(519)</sup> <sup>(520)</sup> <sup>(521)</sup> <sup>(522)</sup> <sup>(523)</sup> <sup>(524)</sup> <sup>(525)</sup> <sup>(526)</sup> <sup>(527)</sup> <sup>(528)</sup> <sup>(529)</sup> <sup>(530)</sup> <sup>(531)</sup> <sup>(532)</sup> <sup>(533)</sup> <sup>(534)</sup> <sup>(535)</sup> <sup>(536)</sup> <sup>(537)</sup> <sup>(538)</sup> <sup>(539)</sup> <sup>(540)</sup> <sup>(541)</sup> <sup>(542)</sup> <sup>(543)</sup> <sup>(544)</sup> <sup>(545)</sup> <sup>(546)</sup> <sup>(547)</sup> <sup>(548)</sup> <sup>(549)</sup> <sup>(550)</sup> <sup>(551)</sup> <sup>(552)</sup> <sup>(553)</sup> <sup>(554)</sup> <sup>(555)</sup> <sup>(556)</sup> <sup>(557)</sup> <sup>(558)</sup> <sup>(559)</sup> <sup>(560)</sup> <sup>(561)</sup> <sup>(562)</sup> <sup>(563)</sup> <sup>(564)</sup> <sup>(565)</sup> <sup>(566)</sup> <sup>(567)</sup> <sup>(568)</sup> <sup>(569)</sup> <sup>(570)</sup> <sup>(571)</sup> <sup>(572)</sup> <sup>(573)</sup> <sup>(574)</sup> <sup>(575)</sup> <sup>(576)</sup> <sup>(577)</sup> <sup>(578)</sup> <sup>(579)</sup> <sup>(580)</sup> <sup>(581)</sup> <sup>(582)</sup> <sup>(583)</sup> <sup>(584)</sup> <sup>(585)</sup> <sup>(586)</sup> <sup>(587)</sup> <sup>(588)</sup> <sup>(589)</sup> <sup>(590)</sup> <sup>(591)</sup> <sup>(592)</sup> <sup>(593)</sup> <sup>(594)</sup> <sup>(595)</sup> <sup>(596)</sup> <sup>(597)</sup> <sup>(598)</sup> <sup>(599)</sup> <sup>(600)</sup> <sup>(601)</sup> <sup>(602)</sup> <sup>(603)</sup> <sup>(604)</sup> <sup>(605)</sup> <sup>(606)</sup> <sup>(607)</sup> <sup>(608)</sup> <sup>(609)</sup> <sup>(610)</sup> <sup>(611)</sup> <sup>(612)</sup> <sup>(613)</sup> <sup>(614)</sup> <sup>(615)</sup> <sup>(616)</sup> <sup>(617)</sup> <sup>(618)</sup> <sup>(619)</sup> <sup>(620)</sup> <sup>(621)</sup> <sup>(622)</sup> <sup>(623)</sup> <sup>(624)</sup> <sup>(625)</sup> <sup>(626)</sup> <sup>(627)</sup> <sup>(628)</sup> <sup>(629)</sup> <sup>(630)</sup> <sup>(631)</sup> <sup>(632)</sup> <sup>(633)</sup> <sup>(634)</sup> <sup>(635)</sup> <sup>(636)</sup> <sup>(637)</sup> <sup>(638)</sup> <sup>(639)</sup> <sup>(640)</sup> <sup>(641)</sup> <sup>(642)</sup> <sup>(643)</sup> <sup>(644)</sup> <sup>(645)</sup> <sup>(646)</sup> <sup>(647)</sup> <sup>(648)</sup> <sup>(649)</sup> <sup>(650)</sup> <sup>(651)</sup> <sup>(652)</sup> <sup>(653)</sup> <sup>(654)</sup> <sup>(655)</sup> <sup>(656)</sup> <sup>(657)</sup> <sup>(658)</sup> <sup>(659)</sup> <sup>(660)</sup> <sup>(661)</sup> <sup>(662)</sup> <sup>(663)</sup> <sup>(664)</sup> <sup>(665)</sup> <sup>(666)</sup> <sup>(667)</sup> <sup>(668)</sup> <sup>(669)</sup> <sup>(670)</sup> <sup>(671)</sup> <sup>(672)</sup> <sup>(673)</sup> <sup>(674)</sup> <sup>(675)</sup> <sup>(676)</sup> <sup>(677)</sup> <sup>(678)</sup> <sup>(679)</sup> <sup>(680)</sup> <sup>(681)</sup> <sup>(682)</sup> <sup>(683)</sup> <sup>(684)</sup> <sup>(685)</sup> <sup>(686)</sup> <sup>(687)</sup> <sup>(688)</sup> <sup>(689)</sup> <sup>(690)</sup> <sup>(691)</sup> <sup>(692)</sup> <sup>(693)</sup> <sup>(694)</sup> <sup>(695)</sup> <sup>(696)</sup> <sup>(697)</sup> <sup>(698)</sup> <sup>(699)</sup> <sup>(700)</sup> <sup>(701)</sup> <sup>(702)</sup> <sup>(703)</sup> <sup>(704)</sup> <sup>(705)</sup> <sup>(706)</sup> <sup>(707)</sup> <sup>(708)</sup> <sup>(709)</sup> <sup>(710)</sup> <sup>(711)</sup> <sup>(712)</sup> <sup>(713)</sup> <sup>(714)</sup> <sup>(715)</sup> <sup>(716)</sup> <sup>(717)</sup> <sup>(718)</sup> <sup>(719)</sup> <sup>(720)</sup> <sup>(721)</sup> <sup>(722)</sup> <sup>(723)</sup> <sup>(724)</sup> <sup>(725)</sup> <sup>(726)</sup> <sup>(727)</sup> <sup>(728)</sup> <sup>(729)</sup> <sup>(730)</sup> <sup>(731)</sup> <sup>(732)</sup> <sup>(733)</sup> <sup>(734)</sup> <sup>(735)</sup> <sup>(736)</sup> <sup>(737)</sup> <sup>(738)</sup> <sup>(739)</sup> <sup>(740)</sup> <sup>(741)</sup> <sup>(742)</sup> <sup>(743)</sup> <sup>(744)</sup> <sup>(745)</sup> <sup>(746)</sup> <sup>(747)</sup> <sup>(748)</sup> <sup>(749)</sup> <sup>(750)</sup> <sup>(751)</sup> <sup>(752)</sup> <sup>(753)</sup> <sup>(754)</sup> <sup>(755)</sup> <sup>(756)</sup> <sup>(757)</sup> <sup>(758)</sup> <sup>(759)</sup> <sup>(760)</sup> <sup>(761)</sup> <sup>(762)</sup> <sup>(763)</sup> <sup>(764)</sup> <sup>(765)</sup> <sup>(766)</sup> <sup>(767)</sup> <sup>(768)</sup> <sup>(769)</sup> <sup>(770)</sup> <sup>(771)</sup> <sup>(772)</sup> <sup>(773)</sup> <sup>(774)</sup> <sup>(775)</sup> <sup>(776)</sup> <sup>(777)</sup> <sup>(778)</sup> <sup>(779)</sup> <sup>(780)</sup> <sup>(781)</sup> <sup>(782)</sup> <sup>(783)</sup> <sup>(784)</sup> <sup>(785)</sup> <sup>(786)</sup> <sup>(787)</sup> <sup>(788)</sup> <sup>(789)</sup> <sup>(790)</sup> <sup>(791)</sup> <sup>(792)</sup> <sup>(793)</sup> <sup>(794)</sup> <sup>(795)</sup> <sup>(796)</sup> <sup>(797)</sup> <sup>(798)</sup> <sup>(799)</sup> <sup>(800)</sup> <sup>(801)</sup> <sup>(802)</sup> <sup>(803)</sup> <sup>(804)</sup> <sup>(805)</sup> <sup>(806)</sup> <sup>(807)</sup> <sup>(808)</sup> <sup>(809)</sup> <sup>(810)</sup> <sup>(811)</sup> <sup>(812)</sup> <sup>(813)</sup> <sup>(814)</sup> <sup>(815)</sup> <sup>(816)</sup> <sup>(817)</sup> <sup>(818)</sup> <sup>(819)</sup> <sup>(820)</sup> <sup>(821)</sup> <sup>(822)</sup> <sup>(823)</sup> <sup>(824)</sup> <sup>(825)</sup> <sup>(826)</sup> <sup>(827)</sup> <sup>(828)</sup> <sup>(829)</sup> <sup>(830)</sup> <sup>(831)</sup> <sup>(832)</sup> <sup>(833)</sup> <sup>(834)</sup> <sup>(835)</sup> <sup>(836)</sup> <sup>(837)</sup> <sup>(838)</sup> <sup>(839)</sup> <sup>(840)</sup> <sup>(841)</sup> <sup>(842)</sup> <sup>(843)</sup> <sup>(844)</sup> <sup>(845)</sup> <sup>(846)</sup> <sup>(847)</sup> <sup>(848)</sup> <sup>(849)</sup> <sup>(850)</sup> <sup>(851)</sup> <sup>(852)</sup> <sup>(853)</sup> <sup>(854)</sup> <sup>(855)</sup> <sup>(856)</sup> <sup>(857)</sup> <sup>(858)</sup> <sup>(859)</sup> <sup>(860)</sup> <sup>(861)</sup> <sup>(862)</sup> <sup>(863)</sup> <sup>(864)</sup> <sup>(865)</sup> <sup>(866)</sup> <sup>(867)</sup> <sup>(868)</sup> <sup>(869)</sup> <sup>(870)</sup> <sup>(871)</sup> <sup>(872)</sup> <sup>(873)</sup> <sup>(874)</sup> <sup>(875)</sup> <sup>(876)</sup> <sup>(877)</sup> <sup>(878)</sup> <sup>(879)</sup> <sup>(880)</sup> <sup>(881)</sup> <sup>(882)</sup> <sup>(883)</sup> <sup>(884)</sup> <sup>(885)</sup> <sup>(886)</sup> <sup>(887)</sup> <sup>(888)</sup> <sup>(889)</sup> <sup>(890)</sup> <sup>(891)</sup> <sup>(892)</sup> <sup>(893)</sup> <sup>(894)</sup> <sup>(895)</sup> <sup>(896)</sup> <sup>(897)</sup> <sup>(898)</sup> <sup>(899)</sup> <sup>(900)</sup> <sup>(901)</sup> <sup>(902)</sup> <sup>(903)</sup> <sup>(904)</sup> <sup>(905)</sup> <sup>(906)</sup> <sup>(907)</sup> <sup>(908)</sup> <sup>(909)</sup> <sup>(910)</sup> <sup>(911)</sup> <sup>(912)</sup> <sup>(913)</sup> <sup>(914)</sup> <sup>(915)</sup> <sup>(916)</sup> <sup>(917)</sup> <sup>(918)</sup> <sup>(919)</sup> <sup>(920)</sup> <sup>(921)</sup> <sup>(922)</sup> <sup>(923)</sup> <sup>(924)</sup> <sup>(925)</sup> <sup>(926)</sup> <sup>(927)</sup> <sup>(928)</sup> <sup>(929)</sup> <sup>(930)</sup> <sup>(931)</sup> <sup>(932)</sup> <sup>(933)</sup> <sup>(934)</sup> <sup>(935)</sup> <sup>(936)</sup> <sup>(937)</sup> <sup>(938)</sup> <sup>(939)</sup> <sup>(940)</sup> <sup>(941)</sup> <sup>(942)</sup> <sup>(943)</sup> <sup>(944)</sup> <sup>(945)</sup> <sup>(946)</sup> <sup>(947)</sup> <sup>(948)</sup> <sup>(949)</sup> <sup>(950)</sup> <sup>(951)</sup> <sup>(952)</sup> <sup>(953)</sup> <sup>(954)</sup> <sup>(955)</sup> <sup>(956)</sup> <sup>(957)</sup> <sup>(958)</sup> <sup>(959)</sup> <sup>(960)</sup> <sup>(961)</sup> <sup>(962)</sup> <sup>(963)</sup> <sup>(964)</sup> <sup>(965)</sup> <sup>(966)</sup> <sup>(967)</sup> <sup>(968)</sup> <sup>(969)</sup> <sup>(970)</sup> <sup>(971)</sup> <sup>(972)</sup> <sup>(973)</sup> <sup>(974)</sup> <sup>(975)</sup> <sup>(976)</sup> <sup>(977)</sup> <sup>(978)</sup> <sup>(979)</sup> <sup>(980)</sup> <sup>(981)</sup> <sup>(982)</sup> <sup>(983)</sup> <sup>(984)</sup> <sup>(985)</sup> <sup>(986)</sup> <sup>(987)</sup> <sup>(988)</sup> <sup>(989)</sup> <sup>(990)</sup> <sup>(991)</sup> <sup>(992)</sup> <sup>(993)</sup> <sup>(994)</sup> <sup>(995)</sup> <sup>(996)</sup> <sup>(997)</sup> <sup>(998)</sup> <sup>(999)</sup> <sup>(999)</sup>

심나샤밋게호 눈둔쟈를맛

서교인이 이 말솜을 듯고 굴으니 우리도 눈이 머렷느냐 예수니 굴으  
샤우 너희가 눈이 머렸더면 죄가 업스러니와 시방 말공기를 우리가 본다 호기로 죄가 그쳐 잇는 나라

내가 진실노 진실노 너희드려 널노 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드려가지아  
니하고 다른 곳으로 넘어가는자는 도적이오 강도라 문으로 드려가는이가  
양의 목자니 문직이가 그를 위호야 문을 열고 양도 그 소리를 듯느니 그  
양의 그 일홈을 각각 불너 내느니라 그 양을 다 불너 낸 후에 암서 가면  
양이 쏙라오는 거슨 그 소리를 알미오 타인을 쏙르지 아니하고 다라남은  
타인의 소리를 아지못함이라 호시니 예수니 이 비유로 뭇 사람의 게  
닐으시되 데희게 호신 말씀이 무슴 말인지 아지못乎더라 ○ 그런고로  
예수니 죽도 닐으샤되 내가 진실노 진실노 너희게 말호노니 내가 양의  
문이라 나보다 몬져온 사름은 다 도적이오 강도니 양이 듯지아니호엿  
느니라 내가 곳 문이니 누구던지 나로 말미암아 드러가면 구원을 엿고  
드러가며 나올제 쓸을 엇으리라 도적이 오는 거슨 다름이 아니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 식히라는 거시오 내가 온 거슨 양으로 흉여곰

목자는 양을 위<sup>호</sup>야 목숨을 브리고 삭군은 목자가 아니오 양도 또 제  
 양이 아니라 일희가 오는 거슬 보면 양을 브리고 다라나리니 일희가  
 양을 잡고 무리를 헷치리라 다라나는 거슨 삭군인 쇠돌이니 양을 도라  
 보지 아니<sup>호</sup>나 나는 선호 목자니 나도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거시  
 아바지<sup>제</sup>셔 나를 아시고 내가 아바지를 아는 것<sup>호</sup>니 도 내가 양을  
 위<sup>호</sup>야 목숨을 브리노라 도 내게 다른 양이 잇서 이 우리에 들지 아니  
 혼지라 내가 쇠을 어야 홀터이니 대희도 내 소리를 듣고 혼무리가 되여  
 혼 목자의 게 잇스리니 아바지<sup>제</sup>셔 나를 스랑<sup>호</sup>시는 거슨 내가 목숨을  
 브렸다가 다시 엇으려 흠이라 내 목숨을 빼아슬 사름이 업스나 내가  
 스스로 브릴지니 나는 브릴 권세도 잇고 다시 엇을 권세도 잇스니 이  
 거슨 내 아바지의 게서 밟은 계명이라<sup>호</sup> 시더라 ○ 유대인들이 이 말을  
 인<sup>호</sup>야 다시 변론<sup>호</sup>시 그 중에 여러<sup>호</sup>손 말<sup>호</sup>되며 사름이 샤귀들녀  
 멋첫거늘 엊지<sup>호</sup>야 그 말을 듯느냐<sup>호</sup> 혹은 말<sup>호</sup>티 이 말은 샤귀들녀  
 사름의 말이 아니라 샤귀가 엊지 눈먼자의 눈을 쓰게<sup>호</sup>겟느냐<sup>호</sup> 더라 ○

요한 십장

횡후신일노 三  
종거호심

예루살렘에 슈던절이 나르니 땅가 겨울이라 예수 | 성당에서 솔노몬

횡랑으로 든나시니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굴으니 그 터가 우리로 의심  
나게 호기를 연제 선지 호랴는냐 그 터가 그리스도여든 류히 그르치라

호니

예수 |

그로

티답호

샤

내가

아

바

자

의

일

홈

으로

횡

호

는

일

이

나

를

위

호

야

증

거

호니

예수 |

그로

티답호

샤

내가

아

바

자

의

일

홈

으로

횡

호

는

일

이

나

를

위

호

야

증

거

호니

예수 |

그로

티답호

샤

내가

아

바

자

의

일

홈

으로

횡

호

는

일

이

나

를

위

호

야

증

거

호니

예수 |

그로

티답호

샤

내가

아

바

자

의

일

홈

으로

횡

호

는

일

이

나

를

위

호

야

증

거

호니

예수 |

그로

티답호

샤

내가

아

바

자

의

일

홈

으로

횡

호

는

일

이

나

를

위

호

야

증

거

호니

예수 |

그로

티답호

샤

내가

아

바

자

의

일

홈

으로

횡

호

는

일

이

나

를

위

호

야

증

거

호니

예수 |

그로

티답호

샤

내가

아

바

자

의

일

홈

으로

횡

호

는

일

이

나

를

위

호

야

증

거

호니

예수 |

그로

티답호

샤

내가

아

바

자

의

일

홈

으로

횡

호

는

일

이

나

를

위

호

야

증

거

호니

예수 |

그로

티답호

샤

내가

아

바

자

의

일

홈

으로

횡

호

는

일

이

나

를

위

호

야

증

거

호니

예수 |

그로

티답호

샤

내가

아

바

자

의

일

홈

으로

횡

호

는

일

이

나

를

위

호

야

증

거

호니

예수 |

그로

티답호

샤

내가

아

바

자

의

일

홈

으로

횡

호

는

일

이

나

를

위

호

야

증

거

호니

예수 |

그로

티답호

샤

내가

아

바

자

의

일

홈

으로

횡

호

는

일

이

나

를

위

호

야

증

거

호니

예수 |

그로

티답호

샤

내가

아

바

자

의

일

홈

으로

횡

호

는

일

이

나

를

위

호

야

증

거

유대인

이에

그로

수

죽

이

고

아

이

고

아니호였느냐 성경은 폐호지못호느니 하느님의 명을 밟든 사람을 신이라  
호셨거든 호를 떠 아바지께서 거룩호게 호샤 세상에 보내신 자가 말호  
기를 내가 하느님 아들이라 호는 거슬 너희가 엊지 촘람호다 호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헝치아니호거든 나를 멋지말녀니와 내가  
헝호거든 나를 멋지아니호나 그 일은 멋으라 너희로 호여곰 아바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바지 안에 있는 줄을 써드란 알게 흠이라 호신토  
여러 사람 이도 잡고 져호매 그 손에 버셔나셔 나가시니라 ○ 다시 요단강  
밧그로 가샤 요한이 처음으로 셰례 주던 곳에 내르러 거괴 거호시니  
사람들이 만히 와서 말호되 요한은 이적을 헝치아니호였스나 이 사람들을  
그르쳐 말흔 거슨 다 촘이라 호는지라 거괴 사람들이 만히 멋더라  
벳아니에 사는 라사로가 병드렸스니 거괴 마리아와 그 형 마르다의 사는  
촌이라 그 마리아는 향괴로온 기름으로 쥬씨 붓고 머리 터력으로 쥬의  
발을 췄기던 사람언티 그 오라비 라사로가 병드렸는고로 그 누의 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여 글으티 쥬여 보시옵쇼셔 스랑호시는 사람이 병  
드렷느이다 호니 예수 드르시고 글으샤티 이 병이 죽을 병이 아니오

요단강밧그  
로가시매여  
려사롭이잇  
고좆침

다라사로를  
다시살니



요한 십일장

십

하느님의 영광을 위호야 하느님 아들노 영광을 엊케 흠이라 호시더라  
 예수 셔서 본리 마르다와 그 동성파 라사로를 스랑호시더니 라사로가 병  
 드렷다 호는 말을 드르시고 계시던 터셔 잇흘을 더 류호시고 그 후에  
 데즈 드려 날으샤티 유대로 다시 가자 호시니 데즈들이 터답호티 람비여  
 근일에 유대인들이 돌노 치려호는티 또 그리로 가시려호는잇가 예수 |  
 터답호샤티 낫이 여솟시가 아니냐 사롬이 낫에 든니면 너머지지아니  
 호는 거슨 셰상 빗출 봄이오 밤에 든니면 너머지는 거슨 빗치 업슴이라  
 호시더라 이 말씀을 호신 후에 도 골으샤티 우리 친구 라사로가 누어  
 자니 내가 가서 셔우겟다 호신티 데즈들이 골으티 주여 누어 자면  
 낫겟느이다 호더라 예수의 말씀은 죽은 거슬 마르침이나 데즈들은  
 평안히 잠자는 말씀으로 호신줄 알거늘 예수 | 봄히 날으샤티 라사  
 로가 죽엇느니라 내가 거기 잇지아니함으로 너희를 위호야 깃버호는  
 거슨 너희로 호여곰 멋게 흠이라 그러나 그의제로 가자 호신티 드두모라  
 호는 도마가 동모드려 말호티 우리도 또 가서 죽자 호더라 ○  
 예수 | 와셔보시니 라사로가 죽어 무덤에 잇슨지 임의 나흘이라 벗아

나가 예루살렘에서 갓갑기가 한 오리 즘 되매 유대인이 만히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와서 그 오라비 죽은 거슬 인호야 위로 흐더니 마르다가  
 예수 오셨다 흐는 말을 듯고 곳 나가 마질서 마리아는 집에 안쳤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엿즈오티 쥬셔서 여괴 계셨더면 내 오라비가 죽지아  
 니 흐 엿슬터이나 나는 이제라도 쥬셔서 하느님께 구호시는 거슬 무어  
 시던지 하느님이 주실줄을 아느이다 예수 | 글으샤티 네 오라비가 다시  
 살니라 마르다가 글으티 모즈막 날 부활흘 때에는 다시 살줄을 내가  
 아느이다 예수 | 글으샤티 나는 부활이오 성명이니 나를 맛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맛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아니 흐리니 이 거슬  
 네가 맛느냐 글으티 쥬여 그러 흐 외다 쥬는 그리스도시오 하느님의  
 아드님으로 세상에 강림하실이인줄 맛느이다 말을 못초고 또 도라가서  
 그만히 그동성 마리아를 불너 말흐티 선성님이 오서서 너를 부르신다  
 흐니 마리아가 이 말씀을 들판 급히 니러나 예수께 나아가니 이 때에  
 예수 | 마을노 드려오지아니 흐시고 마르다를 맞나던 곳에 그저 계시  
 더라 집에서 마리아를 위로 흐는 유대인들이 그 급히 니러나 나가는 거슬

요한 십일장

서십륙

보고 쓰라가며 성각호티 무덤에 꼭 흐려 간다 흐엿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셔 보이고 그 발암해 업티여 글으티 쥬제서 여괴 계셨더면  
내 오라비가 죽지아니 흐엿겟느이다 흐더라 예수니 그 우는것과 쪼  
굿치 온 유대인들도 우는 거슬 보시고 모음에 통분흐시고 숨허하샤  
글으샤티 어티 풋엇느냐 글으티 쥬여 와서 보웁쇼서 흐니 예수제서  
우신티 유대인이 말호티 불지어다 데를 이 굿치 스랑흐는도다 흐니 그  
중에서 말호티 데사름이 눈먼쟈의 눈을 쓰게 흐엿스니 이 사름도 능히  
죽지안케 못호엿겟느냐 흐니 예수니 다시 모음에 통분흐야 무덤에 내르  
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노 막았거늘 예수니 글으샤티 돌을 옮겨노흐라  
흐시니 그 죽은 사람의 누의 마르다가 글으티 쥬여 죽은지가 나흘이  
되였스매 시방은 내암새가 나겟습느이다 예수니 글으샤티 네가 멋으면  
하느님의 영광을 보리라 흐지아니 흐엿느냐 흐신티 그 사람들이 돌을 옮겨  
노흐니 예수니 눈을 드러 우러러 보시고 글으샤티 아바지여 내 말을  
드르신 거슬 감사흐느이다 흥상 내 말을 드르시는줄을 아옵느니 이  
말씀흐옵는 거슨 둘너 선사름으로 흐여곰 아바지제서 나를 보내신

히  
미  
음

유  
대  
인  
이  
만

예  
수  
를  
해  
코

四  
九

四  
八

四  
五

가  
야  
바  
의  
에

四  
十

四  
九

四  
一

四  
三

四  
二

四  
四

四  
四

예  
수  
—  
에  
브  
라  
임  
으  
로  
파

四  
四

四  
四

요한 신일장

거슬 멋게 흠이니이다 말숨을 못초시고 크께 소리를 질너 부르샤되  
라사로야 나오라 호시니 죽은사람이 곳나오는지라 슈족은 뵈로동이고  
얼골은 슈건으로 쫓거늘 예수니 골으사되 푸러노하 힝호개 호라 호시  
더라○ 마리아의게 온 유대인들이 힝호신 일을 보고 만히 멋더라 그  
중에 엉던 사람이 가서 바리서교인을 보고 예수의 호신 일을 널으  
더라○ 제스제장파 바리서교인들이 공회를 모호고 골으되 이 사람이  
이적을 만히 힝호니 우리가 엉더케 흠겠느냐 만일 더의 호는대로 두면  
다빛을 거시오 또로마 사람이 와서 우리따와 나라를 빼아스리라 호니  
그 중에 그 히대제스장 된 가야바라 호는사람이 더희 드려 말호되  
너희들이 아모 것도 아지못하는도다 호 사람이 빅성을 위호야 죽어서  
온나라이 망호지안케 되는 거시 너희게 유익호를 성각지아니호이  
로다호니 이 말은제 몸으로 흠이 아니오 그 히에 대제스장이 됨으로  
예수께서 그 나라를 위호야 죽으시고 또 그 나라만 위호뿐아니라 소방에  
흐허진 하느님의 저녀를 합호야 호나이 되게 흠을 미리 말호이러라 이  
날브터는 그 사람들이 예수죽이기를 쇄호더라○ 그런고로 다시 유대인

가온덕 드러나게 돈니지아니호시고 뵙들 갖가온 곳으로 가샤 에브라임  
 이라 호는 성에 니르러 데즈들과 로치 계시더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갖가오매 절괴 전에 식골서 사름이 만히 예루살렘으로 올나가는 거슨  
 결례를 힁흐려 흠이러라 五五 너희가 예수를 찾다가 성당에 서서 서로 말호티  
 너희 성각에는 엇더호뇨 五六 데가 절괴를 직히려 오지아니호겟느냐 호니  
 이는 제소제장과 바리시교인들이 미리 령을 내되 누가 예수 잇는 곳을  
 알거든 고호야 잡게 호라 흠이러라

유월절 옛서 전에 예수니 벳아니 라사로 잇는 곳에 니르시니 이는  
 예수니 죽은 가온덕셔 다시 살니신쟈라 거괴서 예수를 위호야 잔치홀식  
 마르다가 일을 보고 라사로도 콧자리에 참예흔지라 마리아가 지극히  
 귀호 향괴로온 기름 호 근을 예수 발에 붓고 또 제 머리털노 씨스니  
 기름 향괴가 집에 그득흔지라 데 五 증에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호티 이 향괴로온 기름을 엇지써 삼빅량을 뺏고 파라 간난호 사름을  
 구제호지아니호느냐 호니 이 말은 간난호 사름을 성각호야 그리호는  
 거시 아니오며는 도적이라 돈 전덕를 맛하 너흔 거슬 속속로히 가져

마리아  
향괴로온  
기름으로바

감이라 예수 | 골으샤되 그만두어 이 기름을 나의 장수홀 날을 위호야  
두개 호라 잔난흔 사로은 너희와 흥상 콧치 잇스려니와 나는 너희와  
흥상 잇지못호겠다 호시더라 ○ 유대에 허다호 무리가 예수께서 여괴  
예신줄을 알고 온 거슨 예수 만 위호야 온 거시 아니오 예수께서 다시  
살니신 라사로를 보랴 흠이러라 제스제장이 서로 의로호고 라사로 서지  
잡아죽이랴 호는 거슨 라사로 서둘레에 유대인이 만히 예수를 밋고 종침  
이러라 ○ 절괴를 직히러 온 허다호 무리가 그 잇흔날에 예수 | 예루  
살넴으로 오신다 흠을 듯고 종려 나무 가지를 가지고 나가 마자 골으티  
호산나로다 주의 일홈으로 오시는이는 이스라엘 왕이시니 복이 잇도다  
호더라 예수 | 혼 어린 라귀를 맛나셔 들키니 이는 괴록호 말씀파  
코흔지라 닐넷스티 시온 쫓아 두려워 말나 너의 왕이라 귀삭기를 들키고  
오신다 호엿더라 처음에는 데조들이 이 일을 아지못호다가 예수께서  
영화를 엊으신 후에야 성경에 예수를 그르쳐 괴록호 것과 맛 사람들이  
예수를 향호야 이 콧치 혼거슬 성각호더라 예수 | 라사로를 무덤에서  
불내내여 죽은 가온티셔 다시 살니실 때에 콧치 잇던 무리가 증거호니

라귀를 들키  
고 예루살넴  
으로 드러가  
심

+7 +6 +5 +4 +3 +2 +1 +9 +8 +7

요한 십이장

오십

헬나사  
예수를 보고  
제 흠

무리가 예수께서 이 이적 힝호심을 듯고 가서 맛거늘 바리시교인이  
서로 말호되 볼지어다 너희 흠은 일이 쓸터업다 온 셰상이 데를 쪘는다  
흐더라 ○ 절괴를 당호야 레비호러 올나온 사름 중에 헬나 사름 두어서  
갈닐니 벳새다 사름 빌남의 개 가셔 구호야 골으되 선성이여 우리가  
예수를 보고 저호노라 빌남이 안드레의 개 와서 말호되 안드레가 빌남과  
코치 와서 예수께 옛조오니 예수니 터답호야 골으샤되 인조가 영광을  
엇을 때가 되엿도다 내가 진실노 진실노 너희께 닐으 노니 밀알호나이  
싸에 죽려져 죽지아니호면 그냥 혼 알대로 잇고 죽으면 열미가 만히  
밋칠티아라 제 성명을 앗기는 사름은 일허브릴티이오 이 셰상에서  
성명을 앗기지아니호는 사름은 영성호도록 보호호리라 사름이 나를  
섬기라면 나를 쌔르라 나잇는 곳에 나를 섬기는 사름도 거괴 잇스리니  
사름이 나를 섬기면 내 아바지세서 귀히녁이 실지라 지금 내 모임이  
민망호니 무슴 말을 흐리오 아바지여 나를 구원호야 이 때를 면호해  
호야 주옵쇼서 그러호나 내가 이 거슬 위호야 이 때에 왔는이다 아바  
지여 아바지의 일홈을 영화롭게 흐웁쇼서 흐시니 하늘에서 소리가 잇서

글으니 내가 임의 영화롭게 호였고 또 다시 영화롭게 호리라 호신티  
것해 셋던 무리가 듯고 글으니 우뢰 소리라고도 호며 또 엇던 사름은  
골으니 련스가 웃치 말흔다고도 호니 예수니 글으니 샤티 이 소리가 나를  
위호야 난거시 아니오 너희를 위호야 난거시라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나르렀습니 이 세상 남군이 웃겨 나리라 내가 따에서 들니면 사름을  
다 잇쓸어 내게 오게 호켓노라 호시니 이 말씀은 엇더케 도라가실 거슬  
그르치심이러라 무리가 글으니 우리는 드르니 를법에 날넛스티 그리  
스도 써셔 영원히 산다 호엿거늘 너는 엇지호야 인조가 반드시 들니리라  
호는나 이 인조가 누구냐 혼되 예수니 글으니 샤티 아직 조곰 동안 너희  
종에 빛치 잇스리니 빛치 잇슬 때에 힝호는 사름은 갈바를 아지못호느니라  
지아니호제 호라 어두운 티 힝호는 사름은 갈바를 아지못호느니라  
너희께 아직 빛치 잇슬 때에 빛출 멋으라 그리호면 광명호자가 되리라  
호시더라 ○ 예수니 이 말씀을 못초시고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예수니  
이적을 데희 암해서 이 웃치 만히 힝호셨스나 멋지 아니호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일우려호심이니 날넛스티

유대인이에  
수를  
니호  
지아

三八

三七

三六

三五

三四

三三

三二

三一

三九

요한 십이장

오십이

주여 우리 전호는 말을 누가 빚으며 주의 권능이 뉘게 나타낫느냐  
호였더라 너희가 능히 빛지 못하는 거슨 이사야가 또 날닛스티

그 눈을 멀게 헌시고 그 모임을 완악 헌제 헌신 거시니 이는 너희가

눈으로 보고 모임으로 써듯고 도리키면 내가 곧쳐 줄가 두려워 험이라

호였스니 이는 이사야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그르쳐 말호 거시라

그러나 관원 중에 빛는 사람이 만호되 바리서교인을 인호야 안다 헌지

아니호는 거슨 회당에서 쫓겨 날가 두려워 험이니 사람의 영화를 하느

님의 영화보다 더 빼하함이 러라 ○ 예수 | 소리를 높혀 글으샤더 나를

빛는 사람은 나를 빛는 거시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를 빛는 거시라 나를

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거시니 나는 빗츠로 이 세상에

림호였스매 나를 빛는 사람은 어두운 터 잊지 안케 헌리라 내 말을 듣고

직히지 아니호는 사람을 내가 봉죄호지 아니호 거슨 내가 세상을 봉죄

호라고 온거시 아니오 구원호라고 옴이라 나를 브리고 내 말을 듣지

아니호는자는 봉죄호이가 잇스니 곳 나의 헌던 말이 모조막 날에

봉죄호리라 내가 스스로 말호 거시 아니오 나를 보내신 아바지 셔셔

말흘 것과 전흘 거슬 내게 명호섯스니 그 계명이 영성인줄 아는고로  
 내가 전호는 거슬 아바지썩셔 닐으신 말슴대로 전호노라 호시더라  
 유월절 전에 예수니 세상을 떠나 아바지썩로 도라가실 때가 나르심을  
 아시고 세상에 잇는 드리 빙성을 스랑호시되 뜻서지 스랑호시더라  
 마귀가 예수를 잡아줄 췋을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모임에 임의  
 두엇더니 예수니 아바지썩서 만물을 드리 손에 부치신줄아시고 또 하느  
 님씨로 브터 오셨다가 하느님씨로 도라가실줄도 아시고 져녁 잡수시다가  
 자리에 니러나샤 웃을 벗고 슈건으로 동이시고 대아에 물을 담아  
 가지시고 데즈의 발을 셋기시고 그동이신 슈건으로 셋길식 시몬 베드로  
 의개 니르니 글으티 쥬여 내 발을 셋기십는잇가 호거늘 예수니 터답  
 해야 글으샤티 나의 호는 거슬 네가 이제는 아지못하나 이 후에는  
 알니라 호시니 베드로니 글으티 내 발을 영원도록 셋기지못하시리이다  
 예수니 글으샤티 내가 너를 셋기지아니호면 네가 나로 더브러 상관이  
 업는나라 시몬 베드로니 글으티 쥬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셋겨주옵쇼셔 예수니 글으샤티 임의 목욕훈자는 발 만씨셔도 온몸이

요한 십삼장

오십사

결손함을 권 三  
면호심

十一

잡아줄자

四五

잡아줄자

예수 — 이

다 씩 긋호니라 너희가 씩 긋호나 다 그려흔 거시 아니라 호심은 <sup>1-</sup> 잡아줄 <sup>2-</sup> 말을 씻기시고 옷을 <sup>3-</sup> 납으시고 다시 안져 글으샤되 내가 너희께 흉호 거슬 너희가 아는냐 <sup>4-</sup> 너희가 나드려 선성이라고도 호고 쥬라고도 호니 너희 말이 올흔지라 내가 촘 그려호다 <sup>5-</sup> 내가 쥬도 되고 선성도 되여 너희 발을 씻기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거시 올로다 <sup>6-</sup> 내가 본을 너희께 주어 너희도 내가 너희께 헛호 것 <sup>7-</sup> 꼬치 흉호께 흠이라 내가 진실노 진실노 너희께 널으 노니 종이 <sup>8-</sup> 상연보다 크지못호고 <sup>9-</sup> 심부름 <sup>10-</sup> 하는 사람이 심부름 식히는 사람이보다 크지못호니 이 거슬 알고 흉호면 복이 잇스 리라 내가 너희를 다 <sup>11-</sup> 끄쳐 말호 거서 아니라 내가 터호자는 내가 다 아노니 성경에 <sup>12-</sup> 내가 떡을 먹는 사람이 말궁치를 들어 나를 찬다 <sup>13-</sup> 하는 말이 응호엇도다 <sup>14-</sup> 시방브터 일우기 전에 몬져 너희께 널으 리니 이는 일이 일우거든 너희로 흉여곰 내가 나인줄 멋제 흠이라 내가 진실노 진실노 너희드려 넌으 노니 내가 보낸 사람을 터접호면 나를 터접호는 거시오 나를 터접호면 나를 보내신이를 터접호는 거시라 흉시더라 ○ 예수 — 이

二十一

十九

十八

十七

十六

十五

十四

十三

말씀을 뜻초시고 무음에 민망하야 증거하야 굴으샤되 내가 진실노  
진실노 너희드려 날으노니 너희중 나이나를 잡아주겠다 호시니 데즈  
들이 서로 보며 의심하야 누구를 말씀하신지 아지도하더라 자리에  
참예호 데즈 호나이 잇스니 예수의 소랑호시는자라 예수의 품에 의지  
호엇제늘 시몬 베드로가 머리로 뜻을 보이고 말하되 말씀하신자가 누구  
인지 말하라 호되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야 도라보며  
무르티 주여 누구오닛가 예수니 되답호샤되 내가 먹을 것 호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사름이로다 호시고 곳호조각을 찍으셔다가 가루로 시몬의  
아들 유다를 주시니 밟은 후에 사단이 곳그 속에 드러간지라 그림으로  
예수니 유다 드려 날으샤되 네호 거슬 속히 호라 호시니 자리에 참예호  
사름이 예수의 말씀을 무숨 쫓인지 아는 사름이 업고 유다가 전тир를  
맞핫스매 절과에 쓸 물건을 사라시는지 후 간난호자를 구제하라 호시  
는줄노 안지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밟고 곳나가니 땐가 밤이러라 ○ 나간  
후에 예수니 글으샤되 지금 인조가 영광을 엉고 하느님이 죽인조를 영화롭게  
인하야 영광을 엉으시도다 하느님이 조괴를 인하야 인조를 영화롭게

요한 십사장

오십륙

문도의계피  
초수랑호라  
명호심

세번모른다  
함을예언호  
심

三五

三七

三八

十四

문도의  
을안위  
호심

혹시리니 즉시 영화롭게 혹시리라 쇼조들아 아직도 내가 잠시 너희와  
함께 잊거니와 너희가 나를 차져도 나의 간 곳에 오지못할리라 훈말은  
이전에 유대인의계도 말할엇거니와 지금 또 너희드려 닐으노라 새  
계명을 너희의계 주노니 서로 스랑호라 서로 스랑호기를 내가 너희를  
스랑호듯줄지니라 ○ 너희가 서로 스랑호면 모든 사람이 이로써 너희가  
내 데즈인줄 알니라 ○ 시몬 베드로가 글으티 쥬여 어티로 가시는잇가  
예수 | 글으샤티 나의 가는곳을 네가 지금은 쓰라오지못호나 이후에는  
쓰라오리라 베드로 | 글으티 쥬여 내가 지금은 엇지호야 쓰르지못호  
겟는잇가쥬를 위호야 목숨을 브리겟는이다 ○ 예수 | 글으샤티 네가 나를  
위호야 목숨을 브리겟는냐 내가 진실노 진실노 너드려 닐으노니 드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모른다 흐리라 혹시더라  
너희는 무음에 근심호지 말나 하느님을 빛으니 또 나를 빛으라 내가 아바지  
집에 잇슬 곳이 만호니 그려치아니면 너희게 날넷스리라 내가 가셔  
너희를 위호야 잇슬 곳을 예비호리라 가셔 너희 잇슬 곳을 예비호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호야 나 잇는 곳에 너희도 잇게

주고온곳길  
이오성명이  
호현부와일  
례되심을말  
슴하심

호리니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니라 호시니 도마 | 굴으 터

쥬여 가시는 곳을 아지못호거늘 그 길을 엊지 알겠습՞니잇가 예수 |

굴으 샤티 내가 곳길이오 진리오 성명이니 나로 말미암지아니호면 아바

지씨로 올 사름이 업스리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면 내 아바지도 알았

스리니 이제 브터 너희가 알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굴으 터 쥬여 아바

지를 보여주옵쇼셔 그리호면 우리에게 족호겟습՞니이다 예수 | 굴으 샤티

빌립아 내가 너와 이곳치 오래 잇스되 나를 아지못호느니 나를 본

사름은 아바지를 보았거늘 엇지호야 아바지를 보이라 호느니 나는 아바

지의 안에 잇고 아바지는 내가 안에 계신 거슬 네가 멋지아니호느니

너희드려 닐으는 말이 내가 스스로 호는 거시 아니라 아바지씨서 내

안에 계서 그 일을 힝호시는 거시라 내가 아바지안에 잇고 아바지씨서

내 안에 계심을 멋으라 멋지아니호겟거든 힝호는 일을 인호야 나를

멋으라 내가 진실노 진실노 너희드려 닐으 노니 나를 멋는 사름은 나의

힝호는 일을 데도 힝흘러이오 또호 이보다 큰 것도 힝호리니 이는

내가 아바지씨로 도라감이라 너희가 내 일홈으로 무어시던지 구호면

75

三

二

一

九

八

七

六

요한 십성장

오십팔

일우위주심

보혜를 허락 十八  
호심 十九

十八

十七

내가 시힐홀 거슨 아바지 써셔 아들노 말미암아 영화를 엿개 흠이니  
내 일홈으로 무어시던지 내게 구호면 내가 시힐홀을 거시오 너희가 나를  
세셔 또 다른 보혜스를 너희께 보내여 영원토록 웃치 잇제 호시리니 이는  
진리의 신이라 셰상이 능히 빛지못하는 거슨 보지도 못하고 아지도 못함  
이나 너희가 아는 거슨 너희와 마치 계시고 또 너희 속에 계실 연교라

내가 너희를 떠나 외로온 조식 웃치 브리지 아니하고 너희께로 림호려  
나와 아직 조곰 잇다가 셰상이 다시 나를 보지못할터이로되 너희가  
나를 봄 거시오 내가 살므로 너희도 살니라 그 날에 내가 아바지 안에  
잇고 너희가 내 안에 잇고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거슬 너희가 알니라  
나의 계명이 잇서쳐 직히는 사람은 나를 스랑호는 사람이니 나를 스랑  
호는 사람은 내가 아바지 써셔 스랑호실터이오 나도 또 스랑호야 내가  
그 사람의게 나타나 보이리라 가룟 유다 말고 다른 유다가 골ㅇ 뒤 쥬여  
우리의개는 나타나 보이시고 셰상 사람의개는 나타나 보이시지 아니할  
거슨 엉더호 일이오닛가 예수니 뒤답호야 골ㅇ 샤티 사람이 나를 스랑

三

三

三

三

내 일홈으로 무어시던지 내게 구호면 내가 시힐홀을 거시오 너희가 나를  
세셔 또 다른 보혜스를 너희께 보내여 영원토록 웃치 잇제 호시리니 이는  
진리의 신이라 셰상이 능히 빛지못하는 거슨 보지도 못하고 아지도 못함  
이나 너희가 아는 거슨 너희와 마치 계시고 또 너희 속에 계실 연교라

내가 너희를 떠나 외로온 조식 웃치 브리지 아니하고 너희께로 림호려  
나와 아직 조곰 잇다가 셰상이 다시 나를 보지못할터이로되 너희가  
나를 봄 거시오 내가 살므로 너희도 살니라 그 날에 내가 아바지 안에  
잇고 너희가 내 안에 잇고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거슬 너희가 알니라  
나의 계명이 잇서쳐 직히는 사람은 나를 스랑호는 사람이니 나를 스랑  
호는 사람은 내가 아바지 써셔 스랑호실터이오 나도 또 스랑호야 내가  
그 사람의개는 나타나 보이리라 가룟 유다 말고 다른 유다가 골ㅇ 뒤 쥬여  
우리의개는 나타나 보이시고 셰상 사람의개는 나타나 보이시지 아니할  
거슨 엉더호 일이오닛가 예수니 뒤답호야 골ㅇ 샤티 사람이 나를 스랑

문도의계평  
안홍을주심

二五

二六

二七

二八

二九

흐면 내 말을 직히리니 내 아바지세서도 스랑호실터이오 또 우리도  
나아와서 더와 흠써 잇슬터이오 나를 스랑호지아니호는 사람은 내 말을  
직히지아니흘터이니 너희가 듯는 거슨 내 말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 내가 아직 너희와 혼가지로 잇서서 이 말노  
너희게 닐으 노니 보혜스가 곧 성신이라 아바지세서 내 일홈으로 보내  
시리니 모든 거스로 너희를 그르쳐 내가 너희게 닐으 말을 다 괴억호제  
호시리라 평안홈을 너희게 씨쳐주노니 나의 평안홈을 너희게 주는  
거슨 이 셰상이 주는 것 모치 내가 너희게 주는 거시 아니라 너희는  
모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호지도 말나 내가 떠나갓다가 너희게로 온다  
호는 말을 너희가 드릿거니와 나를 스랑호엿더면 내가 아바지세로  
도라갈 거슬 깃버호엿스리니 이는 아바지세서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우기 전에 닐으 거슨 일이 일을 때에 너희로 호여곰 멋제 흠이라  
이후에는 너희와 말을 만히 호지아니호리라 이 셰상 님군이 올려이나  
내게 아모 상관이 업스니 오직 내가 아바지를 스랑호는 것과 아바지  
세서 명호신대로 쪽차 헹호는 거슬 셰상으로 호여곰 알게 호리니 나러

포도나무  
로문도와  
조괴의련합  
심호을비유호

## 五

三

五

六

七

九 八 七

十

나셔 가자 호시더라

내가 촘 포도 나무요 내 아바지는 포도원 능부라 내게 잇는 가지가  
 과실을 멋지아니호면 아바지썩셔 벼려 브리시고 과실을 멋는 가지는  
 갖구어 과실을 더 만히 멋게 호시리라 지금 너희가 내가 전호야준 말노  
 다 씩긋 호였스니 四 너희도 내 안에 잇스라 나도 너희 안에 잇스리니  
 가지가 포도 나무에 붓지아니호면 절노 五 과실을 멋칠수 업스리니 너희가  
 내 안에 잇지 아니호면 뜨 이 콧흐리라 나는 포도 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더가 내 안에 잇고 내가 더 안에 잇는 사름은 六 과실을 만히 멋치려니와  
 내께서 쑸허지면 아모 것도 훌수 업스리라 사름이 내 안에 잇지아니  
 흐면 가지를 밟게 내여 브려 모른 것 콧흐리니 사름이 주어다가 불에  
 던져 살을지라 七 너희가 내 안에 잇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잇스면 원호는  
 대로 구호라 다 일우게 호리라 八 너희가 과실을 만히 멋침으로 내 아바  
 지를 영화롭게 호고 너희도 내 데즈가 되리라 아바지썩셔 나를 스랑  
 호신 것 그치 내가 너희를 스랑호였스니 너희가 나의 스랑호는 안에  
 잇스라 九 너희가 내 계명을 직히면 나의 스랑호는 안에 잇기를 내가

아바지의 계명을 지히여 아바지의 스랑호시는 안에 있는 것코치 호리라  
내가 이 거슬 너희게 널음은 내 깃봄이 너희 안에 잇서 너희 깃봄을  
충만하게 흠이니 너희가 서로 스랑호기를 내가 너희를 스랑호듯호라  
이 거시 나의 계명이니라 사름이 친구를 위호야 목숨을 브리면 이에셔  
더 큰 스랑이 업느니 너희가 나의 명호는대로 힝호면 곳 나의 친구라  
이 후에는 너희를 종이라 호지아니호리니 종은 주인의 힝호는 거슬  
아지못함이니라 너희를 친구라 호노니 내가 내 아바지씨 드른 거슬  
다너희께 알게 호였슴이라 너희가 나를 턱흔 거시아니오 내가 너희를  
턱호야 세움이니 너희로 호여곰 가셔 파실을 밀치게 호고 또 너희  
파실이 흥상 잇게 호야 내 일홈으로 아바지씨 무어슬 구호던지 아바  
지세셔 다너희를 주시개 흠이니 내가 이 거스로 너희를 명호야 너희가  
서로 스랑호게 흠이라 셰상이 너희를 뭐워호면 너희를 뭐워호기 전에  
나를 몬져 뭐워호줄을 알니라 너희가 셰상에 봇지아니홀뿐더러 내가 턱호야 셰상에 셰  
스랑홀터이나 너희가 셰상에 봇지아니홀뿐더러 내가 턱호야 셰상에 셰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혼 말을 괴억호라 사름이 나를 펫박  
 흐였는즉 또 너희를 펫박홀터이오 내 말을 직햇는즉 또 너희 말을 직힐  
 터이나 그러나 사름이 내 일hom을 인호야 이 모든 일을 너희께 향호야  
 흘 거슨 나 보내신이를 아지못하는 연고나라 내가 와서 말동지아니호  
 엿더면 데희가 죄 업셋스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평계흘수 업을지라  
 나를 뭐워호는 사름은 또 내 아바지를 뭐워호느니 내가 데희 중에서  
 다른사람이 흐지못흘 일을 흐지아니호 엿더면 데희가 죄 업셋스려니와  
 지금은 데희가 나와 및 내 아바지를 보고도 또 뭐워호엇도다 이는 데희  
 를범에 더희가 연고 업시 나를 뭐워호엿다 흐신 말씀을 응호게 흠이  
 니라 보해는 진리의 신이니 아바지세로브터 나오시는지라 내가 아바  
 지세로브터 너희게 보내리니 나르시면 나를 위호야 종거호실 거시오  
 너희도 또 증거흘 거슨 처음브터 나와 흠세 흠이라 호시더라  
 내가 너희게 이 꼬치 날음은 범죄치안케 흠이니 사름이 너희를 회당  
 에서 쫓차내리라 또호 땐가 나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사름이 성각  
 흐기를 스스로 하느님을 섬긴다 흐리니 이 꼬치 흘 거슨 아바지와 나를

성신이예수 <sup>26</sup>  
 를위호야중 <sup>27</sup>  
 거흐문도도 췌호 <sup>28</sup>  
 문도도 췌호 <sup>29</sup>  
 중거흐 <sup>30</sup>  
 췌문도의 <sup>31</sup>  
 모임을안 <sup>32</sup>  
 위호심 <sup>33</sup>

성신의 강림  
으로 위로 흐  
심

주의 부활  
으로 위로 흐  
심  
승현으로 위  
로 흐심

아지못호는 연고라 다만 이 말을 너희게 널은 거슨 너희로 흐여곰 그  
때를 당호면 내가 너희게 미리 말호 거슬 괴억호제 흐는 거시오 처음에  
이 말을 흐지아니호 거슨 너희와 뜻치 잇슴이라 <sup>五</sup>지금 내가 나 보내신  
내가 이 말을 흠으로 너희 중에서 어티로 가는 냐 묻는 사름이 업도다  
<sup>六</sup>이의개로 갈지라도 너희 중에서 어티로 가는 냐 묻는 사름이 업도다  
으로 말호노니 내가 떠나는 거시 너희게 유익호리니 떠나지아니호면  
보혜스가 너희게로 오지아니호 거시오 가면 너희게로 보내리니 <sup>七</sup>보혜  
스가 와서 죄와 <sup>八</sup>의와 심판으로 세상을 척망호리라 <sup>九</sup>죄는 너희가 나를  
및지아니호이오 <sup>十</sup>의는 내가 아바지세로 가셔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못  
흐미오 <sup>十一</sup>심판은 이 세상 님군이 심판을 밟음이니라 <sup>十二</sup>내가 아직도 여려  
가지로 너희게 널을 거시잇스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못호리라 <sup>十三</sup>그러  
하나 진리의 성신이 너르면 모든 진리 가온티로 너희를 인도호리니 그  
모임대로 흘거시 아니라 듯는 거스로 말호 거시오 또 장령 일노 너희게  
닐으리라 <sup>十四</sup>성신이 나를 영화롭게 흐겟스니 내 거슬 가지고 너희게 널으  
리라 <sup>十五</sup>무릇 아바지썩 잇는 거슨 다 내 거신고로 내가 말호기를 그가 내

16

거슬 가지고 너희게 날으리라 흐엿노라 조곰 잇다가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고 또 조곰 잇다가 다시 나를 보겠다 흐신티 데즈들이 서로 말하야  
 골으니 우리드려 말씀 흐시기를 조곰 잇다가 나를 보지못하고 또 조곰  
 잇다가 나를 보겠다 흐시며 또 이는 아바지씨로 도라갈 연고라 흐시니  
 이 거시 무숨 말씀이 놈 흐고 또 말흐니 조곰 잇다가라 흐 말씀이 무숨  
 말씀이 놈 그 말씀을 아지못하겟다 흐거늘 예수 그 묵고져 흠을 아시고  
 골으니 샤티 내 말이 조곰 잇다가 나를 보지못하고 또 조곰 잇다가 다시  
 나를 보겠다 흠으로 서로 묻는다 내가 진실노 진실노 너희드려 날으  
 노니 너희는 동곡흐고 슘허흐려니와 세상은 즐거워하겟고 너희는  
 근심흐려니와 너희 근심이 도로혀 즐거움이 되리니 벼인이 히산흐게  
 되매 근심흐는 거슨 그 때가 니름이오 으희를 나흐면 괴로움을 다시  
 심각지아니흐는 거슨 사름이 세상에 남을 즐거워 흠이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모임이 즐거울터이오 또 너희  
 즐거움을 빼아슬 사름이 업슬터이니 그 때에 너희가 나드려 무를 거시  
 업스리라 내가 진실노 진실노 너희게 날으 노니 너희가 아바지씨 무어슬

구호던지 내 일hom으로 그 거슬 주시리라 三 지금서지 너희가 내 일hom으로  
 아모것도 구호지아니호연스나 구호라 그리호면 엇으리니 너희 즐거움이  
 충만호리라 ○ 이전에 비유로 이거슬 너희게 날을거니와 때가 나르면  
三五  
 다시 비유로 너희게 날을지아니호고 아바지를 봄히 그르쳐 날을리라 그  
 때에 너희가 내 일hom으로 구호터이니 나는 너희를 위호야 아바지씨 구호  
 헛다 말호지아니hom은 너희가 나를 스랑호고 또 내가 아바지씨로 브터  
三六  
 음을 빛음으로 아바지씨셔 천히 너희를 스랑호심이니라 내가 아바지  
 씨로 나와셔 셰상에 왔다가 다시 셰상을 떠나 아바지씨로 도라가노라  
 호시니 三七 예조들이 말호티 지금은 뿐히 말씀하시고 아모 비유도 호지아  
 니호시니 三八 우리가 지금이야 아지못호시는 거시 업는줄 알고 또 사름이  
 주씨 무러볼 일이 업는줄 아노니 이로써 우리가 하느님씨로서 나오심을  
 멋습는이다 호니 三九 예수니 곧으샤티 이제는 너희가 멋는나 三三 불지어다 때가  
 나를 혼자 두나 내가 혼자 있는 거시 아니라 아바지씨셔 나와 혼씨  
 혼실터이니라 이 거슬 너희게 날을은 나를 힘남여 평안hom을 엇게 흠이라

어평안함을  
엇음

고난탓으  
시기전에  
현부썩지도  
호야영화롭  
기를구호심

세상에 잊을제 너희가 환난을 뱃으나 안심호라 내가 세상을 이끄엿노라  
하시더라

예수니 이 말씀을 듯초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글으샤더 아바지여  
때가 달르렀소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호샤 아들노 아바지를 영화롭게  
호제 호옵쇼셔 아바지셔서 만유우에 권세를 아들의게 주셨소오니 이는  
아바지셔서 주신 모든 사물의게 아들노 영성을 주께 호심이로소이다  
영성은 곳이 거시니 홀노 호나이신 촘 하느님을 아옵고 또 보내신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미니이다 아바지셔서 내게 맛기신 일을 내가 일우워  
아바지를 이 세상에 영화롭게 호엿소오니 아바지여 창세 전에 아바지와  
호세내게 잊던 영화로써 지금도 아바지와 호세 나를 영화롭게 호옵쇼셔  
아바지셔서 세상에서 내게 주신 사물의게 내가 아바지의 일호을 나타내  
엿소오니 본리 아바지셔 속호자라 내게 주셨스매 너희가 아바지의  
말씀을 직히엿고 아바지셔서 내게 주신 거시다 아바지셔로 온 거신줄  
지금도 너희가 아옵느니 아바지셔서 내게 주신 말씀을 너희가 주었소  
오매 너희가 뱃아 내가 아바지셔로 브터 나온줄을 촘으로 알았소이며

아바지 셜서 나를 보내신 것도 멋었스웁는이다. 내가 여희를 위호야  
 비웁는니 셰상을 위호야. 비웁는 거시 아니오라 내게 주신 사물을 위호야.  
 비웁는이다. 여희가 아바지 셜 속호 사물이로 소이다. 내 거슨 다 아바  
 지의 거시오 아바지의 거슨 내 거시온디 여희를 인호야 영화를 엇는이다.  
<sup>+1</sup> 지금 나는 셰상에 더 잇지아니호겟스오나. 여희는 셰상에 잇스웁고  
 나는 아바지 셜로 가웁는니 거륵호신 아바지여 내게 주신 사물을 아바  
 지의 일홈으로 보전호사 호나이 되기를 우리가 호나이 됨. 그치 호게  
 호웁쇼서 내가 여희와 그치 잇슬 때에 아바지 셜서 주신 사물을 아바  
 지의 일홈으로 보전호와 직히 엿스오니 그 중에 호나도 멀망치 아니호  
<sup>+2</sup> 엿스오나 오직 멀망 훌 드식만 일흔 거슨 성경을 응호게 흠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바지 셜로 가겟스오니 셰상에서 이 말을 호웁는 거슨 여희로  
 호여곰 내 즐거움을 엊어 그 모임에 충만호개 흠이니이다. 내가 아바  
 지의 말씀을 여희께 주엇스오매 셰상이 미워훈 거슨 여희가 셰상에  
 붓지아니호이 내가 셰상에 붓지아니호 그치이니 <sup>+3</sup> 아바지 셜서 여희를  
 셜상에 떠나게 호심을 내가 비웁는 거시 아니오라 보전호사 악훈터



세서 내게 주신 영화를 보게 허려함이니이다 창세 전브터 아바지 써셔  
 나를 스랑 허신 거시로 소이다 의로 오신 아바지여 세상이 아바지를  
 아지못 허여도 나는 아바지를 아웁고 데희도 아바지 써셔 나를 보내신 줄  
 알았습느이다 내가 아바지의 일홈을 데희게 알게 허엿거니와 또 알게  
 허리니 이는 나를 스랑 허신 스랑이 데희 안에 있고 나도 데희 안에  
 잊게 험이니이다 허시더라

예수 | 이 말씀을 듯초시고 데즈와 콧치 나가샤 깃으론이라 허는 시너를  
 건너가시니 거괴 파원이 잇는디 데즈들과 콧치 드러가시더라 예수 |  
 거괴서 데즈들과 갓금 모하시니 예수를 잡아줄 유다도 그 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스 혼례와 및 제스제장과 바리시교인의께서 온 관속을 엉어  
 등과 화와 병괴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샤 글으샤티 너희가 누구를 찾는냐 터답히 터  
 예수라 허거늘 예수 | 글으샤티 내로라 허신티 그를 잡아줄 유다도  
 데희와 조치 셋더라 예수 셋서 데희드려 내로라 허시니 데희가 곳 물너  
 나서 쌔에 업더지는지라 다시 무러 글으샤티 누구를 찾는냐 허신티

요한 십팔장

칠십

베드로 가말  
고의귀를싹

금

예수 | 잡혀 +  
안나스의게 +  
로가심 +

나를 차지 라거든 이 사람들은 가는 거슬 용납하라 호시니 이

거손 전에 말씀호시기를 아바지 써서 내게 주신 사Rom 중에서 호나도

일치 아니호 옛습느이다 호심을 응호케 흠이러라 시몬 베드로가 환도가

잇는지라 빼여 대제스장의 종을 쳐서 올흔 편 귀를 짹그니 그 종의

일홈은 말고라 예수 | 베드로 드려 닐으샤 터 칼을 집에 쇠지라 아바지

썩셔 주신 잔을 내가 엊지 마시지 아니호겟느냐 호시더라 ○ 때에 군수

폐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관속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고 몬져 안나스의

개로 쇠을고 가니 안나스는 이 히에 대제스장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이 전에 유대인과 의론호야 닐으티 혼사름이 빅성을 위호야

죽는거시 유익호다 호던쟈러라 ○ 시몬 베드로가 예수를 죽르고 죽 다른

데즈호나이 죽르니 이 예조는 본리 대제스장과 아는사름이라 예수와

곳치 대제스장의 아문에 드러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섯더니 대제스장과

아는 그 다른 예조가 나가셔 문 직히는 계집드려 말하고 베드로를

다리고 드러왓더니 문 직히는 계집이 베드로 드려 무르티 너도 이

수를 모를다 베드로 가에

+  
+  
+

+  
+  
+

+  
+  
+

+  
+  
+

+  
+  
+

+  
+  
+

+  
+  
+

^

17

가야바의암  
밥으심문을

十八

사름의 데즈가 아니나 흐니 터답 흐덕 나는 아니라 흐고 여러 종파 관속  
들이 거괴 서서 치워 숫불을 피우고 불을 씌이니 베드로가 웃치 서서

불을 씌이더라 ○

대제

스장이

예수드려 그 데즈 삼으신 것과

밋 그르친

거슬 무르니 예수

터답

흐샤되 내가 세상을 향하야 끓히 말하엿는지라

유대인들이 다 모혀 잇는 회당과 성殿에서 흥상

마르치고

은밀 흐게

말하지 아니 흐엿거늘 엊지 흐야 나드려

男神의

男神의 게

무슴 말을 흐엿나 무러보라

여희가

나의 흐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슴을

흐시매 것해 섯는 관속

흐나이 손으로

예수를 쳐

골으 터

네가 대제

스

장의

게

장의

게

이 콧치 터답 흐는

나 흐니 예수

터답

내 말이 올치 아니

흐면 네가 그 올치 아니 흐

거슬

증거 흐려니와 올흔 터

업지 흐야

나를

치는

나

흐시더라

안나

스가

예수를

결박 흐야

대제

스장

가야

바의

게

보내

나라 ○

때에

시몬

베드로

가

서서

불을 씌이더니

엇던 사름이

무르 터

흐니 대제

스장의

종 흐나는

베드로

의

게

귀를 짹기던 사름의

일 가라

二六

二七

二八

二九

三〇

三一

예수 | 쇠을  
녀 빌나 도 압

베드로가 또 그려치 아니호다 홀제 둑이 곳 울더라 ○ 데희가 예수를  
쓰을고 가야바의게로 말미암아 공명에 니르니 새벽이라 데희는 공명에  
드려가지아니호는 거슨 몸을 더러이지아니호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 져  
홍이러라 그림으로 빌나도가 밟게 나가서 데희드려 무르티 너희가 무숨  
일노 이 사람을 죽스호느냐 호니 터답호야 글으티 이 사람이 악호 거슬  
힐치아니호 옛더면 각하의게 잡아 오지아니호 옛겟노라 호거늘 빌나도  
글으티 너희가 다려다가 너희 범대로 저판호라 유대인이 글으티 우리가  
사람 죽이는 거시 가치아니호느이다 호니 이 거슨 예수의 엉더케 죽을  
거슬 그르치신 말씀을 응호게 흠이러라 ○ 이 러 흠으로 빌나도가 다시  
공명에 드려가서 예수를 불너 글으티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호니  
예수 | 터답호샤티 이 말호는 거시 스스로 호는 거시뇨 다른 사람이  
너를 그르쳐 말호더뇨 빌나도 | 글으티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이 사람과  
제스제장이 너를 내게 잡아 보내였스니 네가 무숨 일을 힝호 옛느냐  
예수 | 터답호샤티 내나라는 이 세상 나라 이 아니라 내나라이 이 세상  
나라이더면 내신하가 싸화 나를 유대인의게 잡히지안케 호리니 이제

아세자  
니상자나라  
라호라  
심이  
三六

내나라는 여지아잇지아니호니라 호신되 빌나도 | 골으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니 디답호샤되 나를 왕이라 말호니 내가 이를 위호야

낫스며 죄 이를 위호야 세상에 림호옛스니 이는 진리를 위호야 증거

호려호이로라 진리에 불흔사름은 다내 말을 드르리라 호신되 빌나도 |

골으되 진리가 무어서나 호더라 ○ 말을 못초고 다시 나가셔 유대인

드려 닐으되 내가 보기에는 죄가 호나도 업도다 三九 너희들의게 전례가

잇서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게 혼사름을 노하주느니 너희가 나드려

유대일의 왕을 노하달나호느니 四+ 너희가 죄 소리질녀 골으되 이

사름이 아니라 바라바라 호니 바라바는 강도러라

빌나도 가곳 예수를 잡아내여 채찍으로 싸리더라 군수가 가시를 역거

면류관을 문드려 머리에 씌우고 죄 홍포를 납히고 암해 와서 골으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호니 호며 손으로 싸리더라 빌나도 가 다시 밟게

나가 말등되 보아라 내가 다리고 너희게 나아온 거슨 나 보기에 죄

호나도 업슴을 알게 흠이라 호더라 예수니 가시 면류관을 쓰고 홍포를

넙고 나오시니 빌나도 가 더희드려 말등되 이사름을 보아라 호니 제스

내나라는 여지아잇지아니호니라 호신되 빌나도 | 골으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니 디답호샤되 나를 왕이라 말호니 내가 이를 위호야

낫스며 죄 이를 위호야 세상에 림호옛스니 이는 진리를 위호야 증거

호려호이로라 진리에 불흔사름은 다내 말을 드르리라 호신되 빌나도 |

골으되 진리가 무어서나 호더라 ○ 말을 못초고 다시 나가셔 유대인

드려 닐으되 내가 보기에는 죄가 호나도 업도다 三九 너희들의게 전례가

잇서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게 혼사름을 노하주느니 너희가 나드려

유대일의 왕을 노하달나호느니 四+ 너희가 죄 소리질녀 골으되 이

사름이 아니라 바라바라 호니 바라바는 강도러라

빌나도 가곳 예수를 잡아내여 채찍으로 싸리더라 군수가 가시를 역거

면류관을 문드려 머리에 씌우고 죄 홍포를 납히고 암해 와서 골으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호니 호며 손으로 싸리더라 빌나도 가 다시 밟게

나가 말등되 보아라 내가 다리고 너희게 나아온 거슨 나 보기에 죄

호나도 업슴을 알게 흠이라 호더라 예수니 가시 면류관을 쓰고 홍포를

넙고 나오시니 빌나도 가 더희드려 말등되 이사름을 보아라 호니 제스

요한 십구장

칠십사

호나유대인  
이곳지아니

제장파 관속들이 보고 소리질녀 그로으티 십자가에 못박게 흐쇼셔 십자가에 못박으라나 보기에는 죄가 업다 흐니 유대인들이 터답흐티 우리도 법이 잇스니 그 법대로 흐면 더가 당연히 죽을 거슨 제가 하느님 아들이라 흠이라 흐니 빌나도 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 흐야 다시 공명에 드러가서 예수드려 무르티 네가 어티셔 왔느냐 흐니 예수니 터답흐지 아니 흐시는지라 빌나도 가도 무러 그로으티 내게 말하거니와 아니 흠느냐 내가 너를 노흘 권세도 잇고 십자가에 못박을 권세도 잇는줄 아지못하느냐 예수니 그늘으샤되 우에서 주지아니 흐셨더면 나를 해흘 권세가 업섯스 리니 그런고로 나를 잡아준 사람은 죄가 더 크니라 흐시니 이러 흠으로 빌나도 가 예수를 노흐려 흐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녀 그로으티 이 사람을 노흐면 가이사의 출신이 아니라 조정 왕이라 흔는 사람은 가이사를 터덕 흠이라 흐니 빌나도 가 이 말을 듣고 곳 예수를 선을고 나와서 흔 곳에 내로니 일홈은 박석이라 히브리 말은 가바다니 거괴서 저판하는 자리에 안쳤더라 때는 유월절 중에 예비 흔는 날이니 오정즘 되여

유데인 이예  
수죽 기를 력  
구 흠

十五

빌나도가에  
수를무리의  
개내여줌

예수 1십주  
가를지고성十八  
에나가샤못  
밧히심十九

글으니 업시호자 업시호자 십조가에 못박자 호니 빌나도 | 글으니 내가  
너희왕을 십조가에 못박아 주랴 호니 제소제장이 글으니 가이사 외에는  
우리가 남군이 업느이다 호니 빌나도 가 곳 예수를 너희에게 내여 주어  
십조가에 못박게 호더라 ○ 너희가 예수를 맘흔지라 예수 | 조괴의  
십조가를 지시고 히골쳐라 호는 곳에 나르시니 히브리 말은 골고다 러라  
녀희가 거리셔 십조가에 못박을석 또 두 사람을 혼가지로 못박으니  
좌우편에 호나식 잇고 예수는 가온히 잇더라 빌나도 가 명패를 써서  
십조가 우에 봉치니 그 글에 글으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十一

三

111

四

군수가 그 옷  
을 빼 비읍아

을 흠

요한 십구장

칠십육

우에서 브터 아래 선지 통으로 썄는지라 군수들이 서로 말하니 셋지 말고  
제비 쁨아 누가 엇나 보자 하니 이 거슨 성경에 날넷스티  
더희가 내 것 옷은 눈하고 속 옷은 제비 쁨는다

二四

二五

二六

二七

二八

二九

三〇

三一

三二

三三

三四

三五

三六

三七

三八

三九

四〇

四一

四二

四三

四四

四五

四六

四七

四八

四九

五四

군수가 예수를  
의념구례를  
창으로 침름 三五

三四

예수와 조치 못 박힌 혼사람의 드리를 썩고 또 다른 사람의 드리를 썩고  
三三

예수께 니르러는 임의 죽은 거슬 보고 드리를 썩지 아니하고 군수  
三五

하나이 창으로 네구례를 써르니 피와 물이 곳 나오는 지라 이 거슬  
三六

예수를 장수 三八

본쟈가 증거 하니 그 증거가 촘이라 더가 조괴의 말 헌 거시 촘인줄 알고  
三七

너희로 하여 꼼 멋게 흠이니 이 일이 일운 거순 성경에 닐온 바 그 뼈를  
三八

하나도 썩지 아니하리라 하는 거슬 응호케 흠이오 성경에 또 닐닛스티

더희가 그 썬론쟈를 브라보리라 하였더라 ○ 이 후에 아리마대 요셉은  
三九

예수의 데즈나 유대인을 두려워하는 고로 은휘하더니 빌나도드려 예수의  
四十

시례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나도가 허락하는지라 곳 가서 예수의  
四一

시례를 가져가니라 또 처음에 예수께 밤에 나아왔던 니고데모가 물약과  
四二

침향 빅근 즘 가지고 와서 유대인의 장례하는 법대로 예수의 시례를  
四三

가져다가 가는 뵈에 그 향치료를 너희 싸더라 예수 십자가에 못박히신  
四四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새 무덤이 있으니 아직 사흘이 못 치지 아  
四五

니 흔 곳이라 이 날은 유대인의 예비하는 날이오 또 무덤이 갖가운고로  
四六

예수를 거고 두니라

녀인이 뵙  
무덤을 봄

베드로와  
론문도가 무  
덤암해니 름

季

二 三 三 三 一 九 八 七 六 五 四 三

날 헤 중 첫 날 채 봄기 전에 막달나 마리아가 일주일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옴겨 간 거슬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스랑호시는 그 다른  
데즈의 게 달녀 가서 말hotter 사름이 쥬를 무덤에서 내여다가 어티 두엇  
는지 아지못하겟다 호니 베드로가 그 다른 데즈와 웃치 나가서 무덤으로  
가려호야 둘이 웃치 다른 질홀서 그 다른 데즈가 베드로보다 더 셸니  
다라나셔 몬져 무덤에 니르러 굽흐려 드려다보니 가는 뵈가 잇는지라  
드러가지 아니호 옛더니 시몬 베드로가 죽은 뒤 드라와서 무덤에 드러가보니  
가는 뵈가 잇고 또 머리 쌈던 슈건이 잇는티 가는 뵈와 웃치 잇지아  
니하고 따로 지켜 잇더라 그 때에 무덤에 몬져 왔던 그 다른 데즈가 죽  
드러가 보고 멋은지라 두 데즈가 성경에 죽은 가온티서 반드시 다시  
살아나리라 호신 말씀을 아직 아지못하고 제 집으로 도라가니라 ○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더니 울때에 굽흐려 무땀 속을 드려다보니  
두 련스가 흰 옷을 납고 예수 시례 누엿던 곳에 안젓는티 호나는 머리에  
잇고 호나는 발에 잇더라 련스가 글hotter 녀인아 엊지호야 우느냐 호니  
글hotter 사름이 내 쥬를 가져다가 어느 곳에 두었는지 아지못함이니이다

막달나마리  
아의게나라  
나심

四

하고 몸을 도리켜 예수의 서신 거슬보나 예수신줄 아지못궁더라 예수 |  
글으샤되 너인아 엇지호야 울며 누구를 찾느니 호시니 마리아가 동산  
적이인줄노 알고 글으되 당신이 움겨 갖거든 나드려 어느 곳에 두엇다  
닐으면 곳 가져가리라 호니 예수 | 글으샤되 마리아야 호시거늘 마리  
아가 몸을 도리켜 히브리 말노 닐으되 랍오니여 호니 이는 선성님이라  
홈이라 예수 | 닐으샤되 나를 묻지지말나 내가 아직 아바지씨로 올나  
가지못호연스니 너는 가셔 내 동성들을 보고 닐으되 내가 내 아바지  
씨로 올나가리니 이는 너희 아바지오 또 내 하느님이니 곳 너희 하느  
님이라 호라 호신터 막달나 마리아가 곳 가져 데즈들드려 닐너 글으되  
내가 쥬를 보았다 하고 또 쥬셔서 호신 말씀을 전호더라 ○ 이 날은 닐해  
중 첫날이라 저녁 땨에 데즈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호야 모한 곳에 문을  
닫엇더니 예수 | 니르샤 가온터 서서 글으샤되 너희는 평안홀지어다  
호는지라 예수 | 또 글으샤되 너희는 평안홀지어다 아바지셔서 나를  
보내신 것 꼬치 나도 또 너희를 보내노라 호시더라 이 말씀을 호시고

수도의게나라  
나심

十九

三

三

요한 이십장

팔십

도마가처음	二四	니함	에눈부활호
심을잇지아	二五	후에	도마가
밋음	二六		
로쥬를잇고	二七		
함은사람으	二八		
이칙에거록	二九		
三十			

더희를 향호샤 괴운을 불며 글으샤티 너희는 성신을 밟으라 너희가  
뉘죄던지 샤호면 샤호여질 거시오 뉘죄던지 명호면 명호여지리라 ○  
열두 데즈 중에 되 두모라 호는 도마가 예수 오실 때에 업сет는지라 다른  
데즈들이 날으티 우리가 쥬를 보았노라 호니 도마가 글으티 내가 그  
손에 못자욱을 보지못하며 손가락으로 그 자욱을 문지지못하며 손으로  
그 넙구레를 문져 보지못하며 멋지아니호겟노라 호더라 ○ 여드래를  
지나셔 데즈들이 다시 방안에 모혔을 때에 도마도 웃치 잇더니 문이  
닫쳤는지라 예수니 나르러 가온티 서서 글으샤티 너희가 평안할지어다  
호시고 곳도마드려 날으샤티 네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문져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넙구레를 문져보고 의심치말고 멋으라 호시니 도마가  
골으티 나의 주시며 나의 하느님이시니이다 호거늘 예수니 글으샤티  
너는 나를 본고로 멋으나 보지못하고 멋는 사람은 복이 잇스리라 호시  
골으티 ○ 예수니 데즈 압혜셔 또 다른 이적을 만히 힝호신 거슬이 척에는  
다 괴록지못호였스나 오직 괴록호 이 거슨 너희로 호여곰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며 하느님 아들이 심을 멋게 흠미오 또 너희가 멋고 그 일홈을

영성을 엊개 흠

수도들이  
를 고기를  
잡을 시 예수  
나라 나십

도

힘 납어 성명을 엊개 흠이니라

그 후에 예수 | 티베랴 바다에서 또 데즈의게 나라내 셨스니 나라내 신  
일이 이 러 흠니라 시몬 베드로와 티두 모라 흠는 도마와 갈닐니 가나 사롭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두 아들과 또 다른 데즈들이 고치잇더니 시몬 베드  
로가 굴으티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겟노라 흠거늘 더희가 굴으티 우리도  
고치 가겟다 흠고 나가셔 비에 올낫스나이 밤에 아모 것도 잡지못 흠엿  
더니 날이 뿐아갈때에 예수께서 언덕에 섯스나 데즈들이 예수신줄 아지못  
흐거늘 예수 | 흠으샤티 쇼조야 너희가 먹을 거시 잇느냐 티답 흠티 업느  
이다 흠니 굴으샤티 그물을 비 올흔편에 던지면 엊으리라 흠신티 곳 던졌  
더니 고기가 만하 그물을 들수업는지라 예수의 스랑 흠시는데 데즈가 베드  
로 드려 날으티 주시라 흠니 때에 시몬 베드로가 옷을 벗고 잇다가 주라  
흐는 말을 듯고 곳 옷을 낌고 틴 후에 바다로 뛰여느려 가는지라 다른  
데즈들이 언덕에 셔 양거가 불과 한 오십발 즘 되매 적은 비를 드고 그물에  
그득 흔고 기를 쓸을고 니르러 언덕에 올나보니 숫불을 피엇는티 성선과  
썩이 그 우에 노헛더라 예수 | 굴으샤티 지금 잡은 물고기를 좀 가져오라

요한 이십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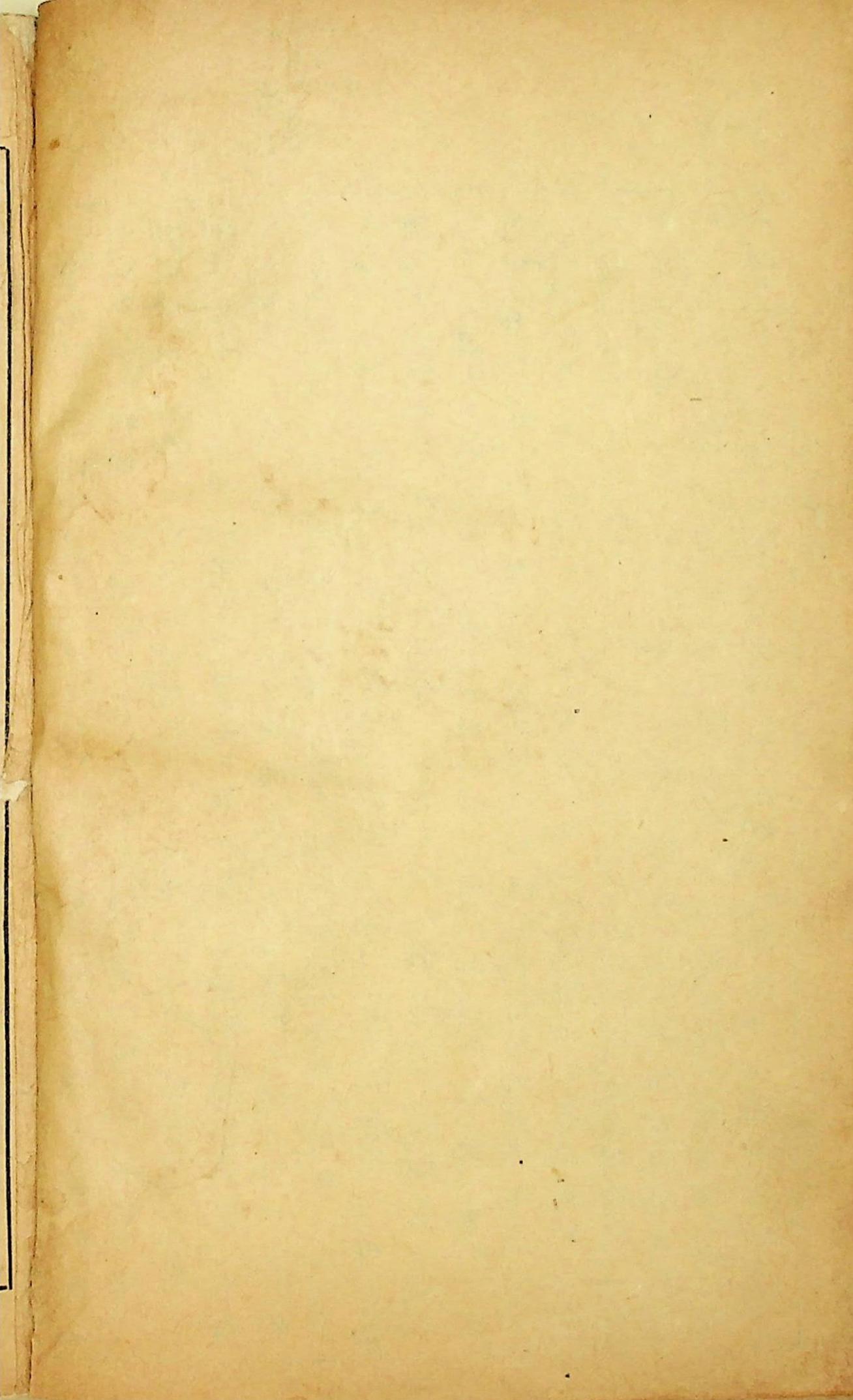
팔십이

하신 터 시몬 베드로 가 곳 가서 그물을 쇠을 어언 덕에 올니니 그물에 그득 훈  
 콘 고기가 일찍 수한 세 마리라 이곳 치 만호나 그물이 씩여 지지 아니 호였  
 더라 예수 + 글으샤 터 너희는 와서 죠반을 먹으라 호시니 데조들이 주신 줄  
 아는 고로 누구냐 감히 못지 못호더라 예수 + 셰서 오서서 떡을 가져다가  
 데희개 주시고 물고기도 그와 끼치 호시니라 예수 + 죽은 가온 터 셔 다시  
 사신 후에 이거시 세번재 데조의 개 나타내신 거시라 ○ 죠반 먹기를 다호매  
 예수 + 시몬 베드로 드려 날으샤 터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사람들 보다  
 나를 더 스랑호는 냐 호시니 터답호 터 쥬여 그러호와다 쥬를 스랑호는 줄  
 쥬셔 아시느이다 호니 글으샤 터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호시고 또 두번재  
 글으샤 터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스랑호는 냐 호시니 터답호 터  
 쥬여 그러호와다 쥬를 스랑호는 줄 쥬셔 아시느이다 호니 글으샤 터 내  
 양을 치라 호시고 또 세번재 글으샤 터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스랑  
 호는 냐 호시니 세번 말슴호시기를 네가 나를 스랑호는 냐 호심으로 베드  
 로 가 근심호야 글으터 쥬여 아지못호심이 업스온즉 내가 쥬를 스랑호는  
 줄을 쥬셔 아시느이다 호니 예수 + 글으샤 터 내 양을 먹이라 내가

베드로가요  
한의장리를  
무롭

진실노 진실노 네개 날으 노니 어려서는 네 손으로 씨를 묵고 임의로 둔념  
거니와 늙으면 네 손을 펴리니 님이 너를 묵게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잡아  
가리라 이 말씀을 호심은 베드로가 엉더케 죽어 하느님을 영화롭게 훌  
거슬 마르치심이러라 말씀을 못초시고 베드로드려 날으샤되 나를 썩으라  
하시니 베드로가 몸을 도리켜 보매 예수의 사랑호시는데 그가 썩으는 터  
이전에 져녁 먹을 때에 예수 품에 의지호야 주를 잡아 줄사람이 누구오 닿가  
못던사람이러라 베드로가 보고 예수께 못자와 굴으되 주여 이 사람은  
잇더케 되겟습는잇가 호니 예수 | 굴으샤되 내가 올때서지뎌를 머물너  
잇게하고 져호나 네개 무슴상관이잇겟느냐 너는 나를 썩으라 호시더라  
이 말씀이 형데들의게 흗혀져 날으기를 이 데도는 죽지 아니호겟다 호나  
예수의 말씀은 죽지아니호겟다 호심이 아니라 다만 내가 올때서지뎌를  
머물너 잇게하고 져호나 네개 무슴상관이잇겟느냐 호심이러라 ○ 이  
일을 증거호야 괴록호 사람이 이 데도라도 우리도 그 증거가 촘인줄  
아노라 ○ 예수의 다른 힘져이 또 만호니 다 낫낫치 괴록호려호면 내  
성각건대 괴록호 척을 둘 곳이 이 세상이라도 부족 호리라 아멘

책을이만로  
괴록지못홈  
치고낫낫치  
괴록지못홈



大正二年十二月五日印刷

大正二年十二月十日發行

京城鍾路

發行者 英國人 閔

休

橫濱市太田町五丁目八十七番地

印刷者 村岡平吉

京城鍾路

發行所 大英聖書公會

橫濱市山下町百〇四番地

印刷所 福音印刷合資會社

OB586